

신문을 활용한 교사용 창의인성교육 교재

— 중학교 자유학기제 창의인성 수업 지도서 —



Contents

목차

01/ 6 배려하는 생활을 실천하자(배려)

02/ 10 부모님 은혜를 되새기자(효)

03/ 14 말이 예의다(예)

04/ 18 존중이 최선이다(존중)

05/ 23 다문화가족과 소통하자(소통)

06/ 28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아름다움)

07/ 33 사랑을 나누며 살자(사랑)

08/ 40 양심의 무게를 느껴보자(양심)

09/ 45 행복의 조건을 알아보자(행복)

10/ 52 공감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자(공감)

11/ 58 나도 할 수 있다(용기)

12/ 64 함께 더불어 살자(협동)

13/ 72 우리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의무)

14/ 77 선(先), 선(善), 선(線)을 지키자(준법)

15/ 83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조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창의인성 수업 지도서 활용방법

- 중학교 자유학기제 주제탐구 활동영역에서 인성 지도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워크북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논리적 사고력, 추론 능력 등 고급 사고력 위주의 학습을 지양하고, 가치 분석이나 가치 추론 등의 방법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 국어, 도덕, 사회 등의 과목과 연계해 수업에 활용하면 교육적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 차시마다 실생활과 연관된 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객관적·사실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학생들은 각각의 활동에 적합한 인성 덕목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성 덕목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덕목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인성 덕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각 주제는 '신문기사-학생활동-지도방법'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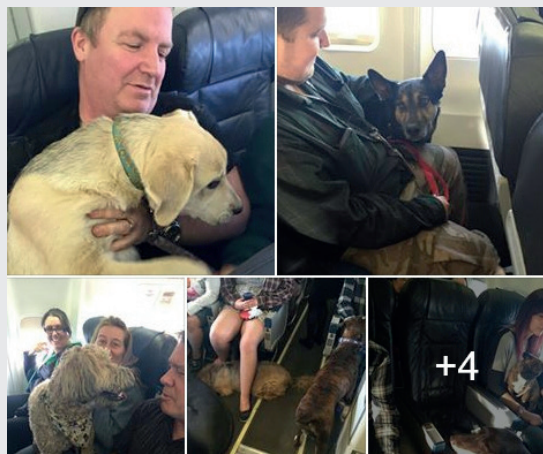
활용방법 TIP!

- ✓ 선생님은 신문 기사를 먼저 읽어 보고, 학생들의 활동내용을 살펴본 뒤 지도방법을 읽어 보면 수업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학습 목표는 인성과 창의로 나누어서 제시했습니다. 창意的인 NIE 활동의 이성적 사고, 인성은 감성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특징을 서술했습니다.
- ✓ 학습지도안은 집필진들이 제시한 학습 모형이므로 선생님의 학습 방향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 ✓ 차시마다 '학생활동'은 5~6개로 구성되며, 선생님의 필요나 수업 목적에 따라 활동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학생들에게 모르는 낱말은 사전을 통해 알아보게 하고, 단어집을 만들어 활동하도록 지도해 주면 다음 활동을 할 때 효과적입니다.

- 각 활동들은 제시한 기사 내용 이외에 신문(사이트), 인터넷, 관련 서적을 참고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 모둠별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학생들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탐구의 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 활동을 마친 후에는 각각의 활동들을 포트폴리오로 정리하거나 인성 덕목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계획하기, 행동하고 난 뒤의 후거나 느낌 쓰기 등 정의적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기법을 활용하면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배려하는 생활을 실천하자

피난민을 위한 캐나다 항공사의 작은 배려



대형 산불로 피난길에 오른 시민들을 위해 작은 배려로 큰 감동을 전한 항공사가 외신에 소개됐다.

기내에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항공사가 이런 규정을 일시적으로나마 없애고 승객과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항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일 앨버타주 포트맥머리 외곽지역의 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재민과 피난민을 돕기 위한 것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여객기를 이용할 때 반려동물과의 동승을 허용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항공사 직원이 된 고양이 '묘묘'가 현지 언론에 소개돼 대형화재로 침체된 분위기를 잠시나마 따뜻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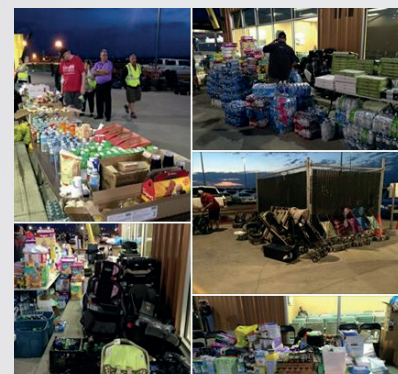
묘묘가 직원이 된 사연은 만삭인 주인과 비행기에 올라 대피하던 중 주인의 출산으로 보살핌이 필요하자 운항 관리 사무소 측이 주인을 대신해 묘묘를 맡기로 한 것이 계기로, 묘묘는 사무실을 지키며 애교부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항공사 대변인은 “동물의 객실 탑승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지만 거대한 산불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규정을 잠시 없앴다”며 “하루빨리 정상화가 이뤄져 다시 평온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언젠가 다가올 이별에 아쉬워 하면서도 묘묘가 주인과 다시 만나길 바라고 있다. 한편 항공사뿐 아니라 각지에서 구호품을 보내는 등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출처: 세계일보, 2016.5.19



활동 1.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는 뜻입니다. 기사를 읽고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활동 2. 항공사가 반려동물의 탑승을 거절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①

②

③



활동 3. 앞에서 뽑은 세 가지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①

②

③



상황 설명하기

주제	배려하는 생활을 실천하자(배려)				
대상	중학교 전학년	차시	1/1(45분)	준비물	학습지, 필기 도구
관련 교과	국어, 도덕, 사회				
학습 목표	1. 신문 기사를 통해 배려하는 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2.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배려적 관점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려를 설명할 수 있다.				
인성 지도 요소	항공사의 사례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배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실제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다지게 한다.				
활동 방법	항공사의 유연한 대처로 수많은 사람과 반려동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고 배려가 필요한 경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배려를 실천한 항공사를 격려하는 편지를 써 본다.				
지도상의 유의점	생활 속에서 타인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도하면 된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배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편 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교생활 중에 관찰한 학생들 사이에 얽힌 이야기도 좋고, 위인들의 배려하는 삶을 소개해도 된다.				

 활동 5. 항공사의 유연한 대처로 수많은 사람과 반려동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 항공사를 격려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유의 사항
도입 (인성접근)	생각 열기	■ 생활 속에서 경험한 배려 사례를 이야기 한다. 사례 정리는 브레인 라이팅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학생들 사이에 얽힌 이야기도 좋고, 위인들의 배려하는 삶을 소개해도 된다.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 제시 학습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전개 (인성탐구)	입장 정리	■ 신문 기사를 읽고, 항공사의 배려 사례를 정리한다. 기사 속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려가 왜 필요했는지를 찾아보게 한다.	배려하는 마음의 현실적 필요성을 느끼도록 한다.
	성찰하기	■ 배려가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성찰한다. 항공사가 반려동물의 탑승을 거절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	
	해결 방안 찾기	■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생각한다. '반려동물과 교감한 인간의 고통'을 생각해 해당 항공사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설득하게 한다.
	경험 정리하기	■ 일상생활 중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 경험과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설명한다. 경험을 정리하면서 일상생활 중에서 배려를 더욱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실천	■ 배려를 실천한 항공사를 격려하는 편지를 써 본다. 배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활동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도 또 다른 배려라는 점을 설명해 준다.	
정리 (인성의 내면화)	정리	■ 배려하는 생활을 내면화하도록 한다.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 5와 연계시킨다.

부모님 은혜를 되새기자

言中言

‘효(孝)’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에게 뭔가를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편지를 써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1908년 어머니날에 미국의 애나 자비스가 쓴 추도식 전문의 한 구절이다.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를 항상 기렸던 그녀는 어머니날 제정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그 후 1914년 미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은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선포하고 국경일(National Holiday)로 지정했다. ▼8일은 아버지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8일을 어머니날로 정했다. 그 후 1973년부터 명칭을 아버지날로 바꾸었다. 효는 한국



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이며 윤리였다. 따라서 아버지날을 별도로 지정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어느덧 부모가 길러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날이 필요한 우리 사회가 됐다. ▼다산 정약용의 ‘다산문선’에는 효자 정관일의 이야기가 나온다. 효심이 깊었던 정관일은 나이 서른에 요절했다. 세상을 하직하는 자리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두 아이를 남기고 가니 원컨대 이들로 마음을 위로하소

서’라고 했다. 아버지는 통곡하며 ‘나는 오늘 아들을 잃고, 친구를 잃고, 스승을 잃었다’며 슬퍼했다. ▼되돌아 봐야 할 대목이다. 요즘 젊은 사람은 효도를 모른다고 기성세대는 한탄을 한다. 부모에 대한 효심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 또한 안타까운 사실이다. 그러나 성현들은 효에 대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부자자효·父慈子孝)’, ‘부모는 자식의 본(모범)이 돼야 한다(부위자강·父爲子綱)’, ‘부모와 자식은 어떤 경우라도 친함을 유지해야 한다(부자유친·父子有親)’고 했다. 이는 곧 ‘효’가 일방적인 강요나 의무가 아닌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덕목이라는 의미다.

박종홍논설위원·pjh@kwnews.co.kr

※출처: 강원일보, 2016. 5. 7.



활동 2. 각 문단의 주요 내용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문단	이미지로 표현하기	이미지의 의미 설명하기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활동 3. 지난 한 학기 동안 부모님을 기쁘게 또는 슬프게 해 드린 일을 생각해 보고, 어떤 상황에서 그러했는지 설명해 봅시다.

구분	내용	발생한 상황
기쁘게 해 드린 일		
슬프게 해 드린 일		



활동 1. 효에 관한 칼럼을 읽고 주요 내용을 문단별로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활동 4.**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지 정리해 봅시다.

상황	내가 부모라면 했을 행동
가족들과 다룰 때	
부모한 행동을 할 때	

 **활동 5.** 앞선 활동을 바탕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 마음을 다지는 다섯 가지 선서문을 만들어 봅시다.

① 나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존경하는 자세를 갖는다.

②

③

④

⑤

주제	부모님 은혜를 되새기자(효)				
대상	중학교 전학년	차시	1/1(45분)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관련 교과	국어, 도덕, 사회				
학습 목표	1. 신문 기사를 통해 효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2. 효의 중요성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인성 지도 요소	효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한 자녀의 행위를 뜻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으며 인류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지도한다.				
활동 방법	주어진 기사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을 이미지로 표현하여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더불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찰적 활동을 통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정리하게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발표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활동을 통해 반성적 사고를 키우는 것도 인성교육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유의 사항
도입 (인성접근)	생각 열기	■ 효가 지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게 한다. 학생들 사이의 발표를 통해 의견을 공유한다.	효가 결속을 다지고 사회 풍속을 순화하는 긍정적 측면과 형식화되어 자유로운 발상을 막고 개혁을 막은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도한다.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 제시 학습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전개 (인성탐구)	신문 읽기	■ 신문 기사를 읽고, 문단별 정리를 통해 효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다진다. NIE는 신문 읽기에서 출발하므로 문단별로 요약하는 활동을 지도한다.	
	이미지로 표현하기	■ 여러 관점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미지로 표현한다. 이미지로 표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읽기 활동이 전제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상황 정리하기	■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난 일을 돌아보고 상황을 정리한다. '효'는 조상들이 실천한 덕목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역지사지하기	■ 특정한 상황 속에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지도한다.	
	선언문 만들기	■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마음을 다진다. 선언문을 만들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지게 한다.	선언문은 목표를 성취하려는 다짐 및 의지를 표시하는 글임을 강조한다.
정리 (인성의 내면화)	정리	■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한다.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 5와 연계시킨다.

동아광장 | 존댓말 제대로 가르칩시다!

“교수님? 이번 주에 ○○ 쌤께서 초등학교를 가셔야 하는 일이 계시다고 하셔서 수요일 2시 이후나 목요일 오전에 뵙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교수님은 시간이 어찌 되시나요?” 최근 대학원생 제자로부터 받은 카톡 메시지이다. 여기서 ○○ 쌤은 메시지를 보낸 학생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위인 선배를 지칭한다. “△△ 조교님께서 서류를 두고 가셨기에 교수님께 전달합니다.” “** 선배님을 찾아뵈었는데 요즘 너무 하는 일도 많으시고 바쁘셔서 교수님께 연락 못 드려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학생들로부터 늘 이런 종류의 이야길 듣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민망하기 이를 데가 없고 솔직히는 화가 난다.

우리말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경어체(敬語體)란 사실엔 나도 동의한다. 한데 그에 앞서 우리말의 기본은 화자(話者·말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청자(聽者·듣는 사람) 입장에서 경어체를 써야 함은 기본 중의 기본임을 기억할 일이다. 그 기본을 제대로 배운 적 없는 우리 젊은이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입장에서 위사(私)라면 교수나 어르신 앞에서도 선배에 대해 극존칭을 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번은 참다못해 마침 대학원생 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마음먹고 ‘잔소리’를 했다. “어른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듣는 분을 위주로 존댓말을 써야 한다. 교수 입장에서 보면 한참 어린 제자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신의 선배라 하여 극존칭을 붙이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다” 등등.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어두워지던 학생들 반응은 한결같이 “전혀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였다. 그러니 몰라서 실수한 걸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지, 기본조차 몰랐다니 더더욱 한심하다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여기서 새삼 “언어는 존재의 집”이란 거창한 주장을 상기하려는 건 물론 아니다. 다만 일상 언어의 변화 속에 생각의 변화가 고스

란히 투영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어리석은 걱정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어쩌면 말하는 사람 위주로 존댓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인간관계 또한 자신을 중심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지의 무의식적 표현이 아니겠는지.

하기야 존댓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이모 고모 삼촌들과 어울리면서 야단도 맞고 칭찬도 받으며 밥 먹듯 자연스럽게 배웠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관계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가 존칭어였을 것ियो, 존칭어 속에 위아래 서열은 물론이고 서로를 향한 책임과 의무 또한 정교하게 담겨 있었음이 분명하다.

한데 친인척 관계의 변화함이 사라져 간 지금이야 부모 이외에 다른 세대를 접하기 어려운 ‘동년배 중심 사회’인 데다, 자상한 엄마에 친구 같은 아빠 프레디(freddy·친구를 의미하는 트렌드와 아빠를 의미하는 대디의 합성어)가 이상적인 부모상인 바에야, 어디서 존댓말 쓰는 법을 배울 것이며, 더더욱 존댓말의 가치와 의미는 어떻게 체득하겠는가.

덕분에 요즘 세대는 여러 세대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부딪치는 일종의 문화충격이, 20대 동년배부터 30, 40대 상사를 거쳐 50대 이상 임원까지 한 공간에 있는 사무실 상황이라는 데는 별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결국 존댓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다는 사실은, 살아오는 동안 존댓말을 써야 하는 관계를 굳이 경험해보지 못했음과 같은 뜻일 게다.

그럼에도 누구든 어디에서든 존댓말 사용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리란 생각이 요즘 들어 간절해지고 있다. 어른들의 진심 어린 걱정이 “꼰대들의 잔소리”로 쉽사리 묻혀버리지 않도록, 듣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격조 있는 화법(話法)이 말하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버릇없음에 자리를 내주지 않도록.

※출처: 동아일보, 2016. 5. 14.



활동 1. 칼럼의 필자가 말하는 우리말에 있어 높임말(경어체)의 기본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활동 2. 필자의 지적을 바탕으로 칼럼 속의 사례를 올바르게 바로 잡아 봅시다.

사례	바로 잡기
교수님? 이번 주에 ○○ 쌤께서 초등학교를 가셔야 하는 일이 계시다고 하셔서 수요일 2시 이후나 목요일 오전에 뵙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교수님은 시간이 어찌 되시나요?	
△△ 조교님께서 서류를 두고 가셨기에 교수님께 전달합니다.	
**선배님을 찾아뵈었는데 요즘 너무 하는 일도 많으시고 바쁘셔서 교수님께 연락 못 드려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활동 3.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말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지나쳐 사물 존칭까지 생겨났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사물 존칭의 문제점을 생각해 봅시다.

출근길에 사무실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커피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지랖 넓은 고객 한 명이 직원 눈을 찌를 듯 쏘아보며 목청을 높여더군요. “사람이 아닌 사물을 높이는 건 잘못된 어법이죠. 과잉 존대하는 겁니다.” 직원은 계면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잘못된 존칭인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다짜고짜 화내는 손님이 많아서…”



 **3-1.** 커피숍에서 일하는 직원의 말을 바로 잡아 봅시다.

직원의 말	바로 잡기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3-2.** 사물 존칭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해 봅시다.

①	
②	

 **활동 4.** 사물 존칭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캠페인에 필요한 피켓 문구를 만들고 그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피켓 문구	문구의 의미 설명하기

주제	말이 예의다(예)				
대상	중학교 전학년	차시	1/1(45분)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관련 교과	국어, 도덕, 사회				
학습 목표	1. 신문 기사를 읽고 예의 바른 언어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2. 높임말의 의미와 실제 사용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3. 사물 존칭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올바른 표현법을 알 수 있다.				
인성 지도 요소	예의 바른 생활을 위해 올바른 언어생활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언어생활을 되돌아 보고 문제점을 바로잡는다.				
활동 방법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경어체와 사물 존칭에 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한 학생이 사물 존칭으로 말하면 다른 학생이 올바르게 고쳐 말하는 역할극을 시도해 본다.				
지도상의 유의점	넓은 의미의 예는 풍속이나 습관으로 형성된 행위 준칙, 도덕규범 등 각종 예절을 말한다. 공자는 예를 인(仁)의 실천 방법으로서 '자신을 극복하고 예법을 회복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여기서 예는 인간의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이며 목표로 제시되고 있음을 주지시킨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유의 사항
도입 (인성접근)	생각 열기	■ 잘못된 경어체 사용 사례를 말하고 잘못된 곳을 찾아보게 한다.	경어체와 사물존칭 사례를 하나씩 말하고 잘못을 바로 잡도록 한다.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 제시 학습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전개 (인성탐구)	칼럼 읽기	■ 칼럼을 읽고 우리말에 있어 높임말(경어체)의 기본을 찾아보게 한다. 우리말의 기본은 화자(話者· 말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청자(聽者· 듣는 사람) 입장에서 경어체를 써야 함은 기본 중의 기본임을 기억할 일이다.’라는 구절에 밑줄을 긋고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바로잡기	■ 칼럼 속의 잘못된 사례를 올바르게 바로 잡게 한다. 한참 어린 제자인데 자신의 선배라 하여 극존칭을 붙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남을 이해하고, 고쳐보는 활동을 한다.	
	되돌아보기	■ 자기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높임말(경어체)을 정리해 본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실천력을 키우게 하고, 앞선 활동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사물 존칭 문제점 알기	■ 지나친 사물 존칭의 문제점을 생각하게 한다.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말 문화가 발달하면서 생긴 사물 존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캠페인 문구 만들기	■ 사물 존칭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만들고 그 의미를 설명하게 한다. 캠페인 피켓 문구를 고심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반드시 그 문구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게 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리 (인성의 내면화)	정리	■ 예법에 어긋나지 않은 올바른 언어생활을 내면화하도록 한다.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 4와 연계시킨다.





존중의 리더십

주례사를 할 때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는 얘기를 빼놓지 않는다. 배우자의 장점과 강점, 자산뿐만 아니라 단점, 결점, 부끄러운 점, 그리고 상대방의 문제점까지도 ‘내가 선택’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니 서로 존중하고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말이다. 전국을 다니며 부모 교육을 할 때에도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존중하고 또 존중해 주라고 강조한다.

요즘 기업이나 조직마다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지만 존중이야말로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존경받는 지도자요, 뛰어난 기업가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도 그 리더십을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인생이지 결혼생활에 무슨 리더십이 필요하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바이올린 실험이라는 것이 있다. 똑같은 바이올린 두 개를 방 이쪽과 저쪽 끝에 하나씩 놓는다. 그런 다음 바이올린 하나의 현을 뜯으면 다른 쪽 바이올린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진동수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면 그 에너지가 상대방의 마음에도 전달돼 존중이 존중을 낳는다. 인간의 뇌에서 뇌파가 나오고 심장에서도 에너지가 나오는데 배우자의 장점과 진면목을 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존중의 에너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신입사원들이 회사를 그만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 상사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한다. 모두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복지 수준도 좋고 월급도 많이 받지만 그것이 사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얘기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배우자나 부모가 돈 많이 벌어서 주고 모두들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더라도 자기를 끊임없이 무시한다면 누가 그 말을 따르겠는가.

존중은 가족들을 조종하고 회유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잠시 부는 유행이나 트렌드도 아니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이다. 배우자나 자녀를 진심으로 존중하면 설사 쓴소리를 하거나 나무라도 상대방이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거나 잔소리 하거나 무조건 부인하고 반항하는 일이 줄어든다. 그러나 아무리 달콤한 얘기로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 준다 해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소리, 입에 발린 소리로만 들릴 뿐이다.

존중은 ‘조건부’여서는 안 된다. 돈 많이 벌어서 살고 살림 잘하고 나에게 잘하면 존중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무시하면 존

중하지 않는 태도는 진정한 존중이 아니다. 조건부 존중이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해 주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법이다.

배우자나 자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준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같은 얘기는 결코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하고 공감해 주며 자신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할 줄 안다.

존중한다고 해서 무조건 배우자나 자녀의 비위를 맞추거나 상대방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깔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일관되게 그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여 신뢰가 쌓이면 설사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부탁을 거절해도 배우자나 자녀가 나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인자한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소 띤 얼굴로 말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미리 정답을 정해 놓고 본인의 생각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좋은 말로 달래고 설득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기꺼이 내 주장을 접고 상대방 말을 받아들일겠다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신뢰가 생기는 법이다.

가정에서 존중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가정의 공동대표로서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자녀들 앞에서 서로 존중해 주는 모범을 굳이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부모의 생활 자체가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삶이라면 자녀들이 가장 가까이서 보며 배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24시간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 간에는 모든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아무리 부모지만 완벽할 수 없으며 예의를 갖춘다고 하지만 24시간 남들 앞에서처럼 긴장하거나 예의를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나 가족끼리는 더욱더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미숙하고 실수를 하고 부끄러운 점이 있어도 그것을 진심어린 애정으로 감싸고 용서해 주는 가정에서만 진심으로 존중하는 문화, 존중의 꽃이 활짝 필 것이다.

※출처: 조선일보 2015. 10. 11.

 **활동 1.** ‘바이올린 실험’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해 봅시다.

바이올린 실험 그림으로 그리기	
설명하기	

 **활동 2.**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행동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존중하기 위한 행동 규칙	구체적인 실천방안

 **활동 3.** 신입사원이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사를 참고해 정리해 봅시다.

이유	
해결방안	

 **활동 4.**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 사례와 그 이유 및 느낀 점을 정리해 봅시다.

존중하게 된 사례	이유	느낀 점

 **활동 5.**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캠페인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캠페인 활동 계획을 세워봅시다.

캠페인 슬로건	
캠페인 장소	
캠페인 시간	
캠페인 방법	서로 존중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유인물 나눠 주며 설명하기
함께 할 사람	
유인물에 넣을 내용	



주제	존중이 최선이다(존중)				
대상	중학교 전학년	차시	1/(45분)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관련 교과	국어, 도덕, 사회				
학습 목표	1. 신문 기사를 통해 존중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2. 바이올린 효과를 통해 존중의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다. 3. 존중하는 문화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인성 지도 요소	존중은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 행동 등을 높이 사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사례와 자신의 사례를 되돌아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한다.				
활동 방법	바이올린 효과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 사례와 그 이유 및 느낀 점을 정리해 본 뒤에 캠페인 활동도 설계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감정의 특성이나 불규칙성, 민감성, 감정적 욕구 등을 파악해 감정 관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를 할 수 있게 지도한다.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유의 사항
도입 (인성접근)	생각 열기	■ 다른 사람을 존중한 경험을 서로 발표해 본다.	존중은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포함됨을 설명한다.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 제시 학습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전개 (인성탐구)	그림 그리기	■ ‘바이올린 실험’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게 한다. 기사를 꼼꼼하게 읽고 바이올린 실험의 의미를 파악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 설명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기 위한 행동을 정리하게 한다. 존중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되어야 하므로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지도한다.	
	분석적 기사읽기	■ 신입사원이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사를 참고해 정리하게 한다.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사례 찾기	■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 사례와 그 이유 및 느낀 점을 정리하게 한다.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존중의 중요성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게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는 공격적이지 않아야 함을 설명한다.
	캠페인 설계하기	■ 서로 존중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설계하게 한다. 존중하는 자세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설계해 실천의지를 다지도록 한다.	
정리 (인성의 내면화)	정리	■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한다.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 5와 연계시킨다.

part.

05

다문화가족과 소통하자

다문화 아기, 한복 입고 전통 돌잔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기들의 첫 생일을 축하합니다.’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오는 21일 ‘특별한 생일잔치’가 열린다. 다문화 가정 아기들이 색색의 한복을 입고 전통 돌잔치를 치르는 것이다. 가정 형편상 부담이 되는 부모들에게 마음의 짐을 덜어 주고, 한국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도 제공

하려는 취지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18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문화가정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처음으로 합동 돌잔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에는 현재 2454가구의 다문화 가정이 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구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마련했다. 광진지역에 거주하는

광진구, 한국 전통문화 체험 마련 경제 부담 덜고 성공 정착 지원도

다문화 가족 중 6가구를 선정했다. 이들 가족의 친척과 지인 등 관객 250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행사에선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차밍’의 축하공연에 이어 덕담과 돌잡이, 가족 장기자랑,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된다. 구에서 돌잔치 참가자들에게 무료 한복을 대여해주고, 자녀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아기들의 목에 실타래도 걸어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행사장 한쪽에 관객들을 위한 다과 부스와 덕담카드 작성 코너, 가족사진 전시 등 개인 돌잔치와 다를 바 없이 정성껏 준비했다”면서 “돌 기념 답례품으로 수건과 떡도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다문화 가족들에게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소중한 시간이자 소통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다문화 가정의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2016. 05. 19.



 **활동 1.** 기사를 읽고 광진구가 다문화가정 아기들을 위해 ‘특별한 생일잔치’를 연 이유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기

 **활동 2.** 우리나라에 많이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전통적인 돌잔치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국가	돌잔치	의미
대한민국	돌잡이	쌀, 붓, 활, 돈, 실 등을 펼쳐놓고 아이가 잡는 물건을 아이의 장래와 관련하여 미래를 점쳐본다.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활동 3.** ‘특별한 생일잔치’ 행사 중의 하나인 덕담카드를 그려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덕담 카드

의미 설명하기

 **활동 4.** 다문화가정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내용의 표어를 쓰고, 그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표 어

의미 설명하기



 **활동 5.** ‘특별한 생일잔치’ 행사내용을 참고해 다문화가정의 어른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지도하기 위한 다양한 한글정책을 구상해 봅시다.

정책 이름	
참여자 선발 방법	
한글 교육 방법	
지도교사 선발	
지도교사 교육	
이수자를 위한 행사	

주제	다문화가족과 소통하자(소통)				
대상	중학교 전학년	차시	1/1(45분)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관련 교과	국어, 도덕, 사회				
학습 목표	1. 신문 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을 느낄 수 있다. 2. 다문화가족과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글교실을 설계할 수 있다.				
인성 지도 요소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의 중요성과 다른 나라의 돌잔치 문화를 알아보면서 문화의 상대성과 다양성을 느끼도록 한다.				
활동 방법	우리나라에 많이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전통적인 돌잔치를 알아보고 그 의미를 정리한다. 또한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을 주제로 한 표어 만들기과 한글교실 개소를 위한 설계 활동을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 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라는 순혈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하게 지속되었다. 다문화가족은 오랜 시간 혼혈 가족, 혼혈아 등으로 불리며 차별받았다. 그렇지만 세계화와 이주화로 인한 외국인 유입 증가, 국제결혼 급증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유의 사항
도입 (인성접근)	생각 열기	■ 자신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다문화가족과의 교류 상황을 발표한다.	다문화가족과 교류한 경험담을 솔직하게 발표하게 한다.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 제시 학습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전개 (인성탐구)	기사 읽기	■ 광진구가 다문화가정 아기들을 위해 ‘특별한 생일잔치’를 연 이유를 알아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하여 다문화가정의 아기를 위한 돌잔치를 연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지도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활동도 소개한다.
	돌잔치 알아보기	■ 우리나라에 많이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전통적인 돌잔치를 알아본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함께 다문화가정의 전통문화도 이해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문화적 상대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덕담 카드 그리기	■ 덕담카드를 그려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본다. 덕담카드는 상징적인 그림을 그리고 격려하는 말을 기술하도록 지도한다. 긍정적이고 희망찬 문구로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표어 쓰기	■ 다문화가정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표어를 쓰고, 그 의미를 설명해 본다. 한 마디의 말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일깨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책 구상하기	■ 다문화가정의 어른들을 위해 우리말과 글을 지도하기 위한 한글교실을 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상한다.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한글 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게 한다.	개별 또는 팀별 활동을 통해 알찬 방안을 제시하도록 지도한다.
정리 (인성의 내면화)	정리	■ 다문화가족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한다.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 4, 5와 연계시킨다.



창의적 인간 이세돌의 아름다운 도전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AI)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했다. 하지만 이 9단은 3연패 후 벌어진 네 번째 대국에서 도전하는 인간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보여주며 180수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이어 15일 벌어진 마지막 대국에서 이 9단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흑돌을 스스로 선택하며 자신과 알파고의 한계에 도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4국의 여세를 몰아 이 구단의 승리를 기원했지만 5시간 280수까지 가는 대혈투 끝에 결국 미세한 차이로 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 9단이 다섯 번의 대국에서 보여준 의지와 집중력, 창의적 수 싸움, 도전정신은 박수 받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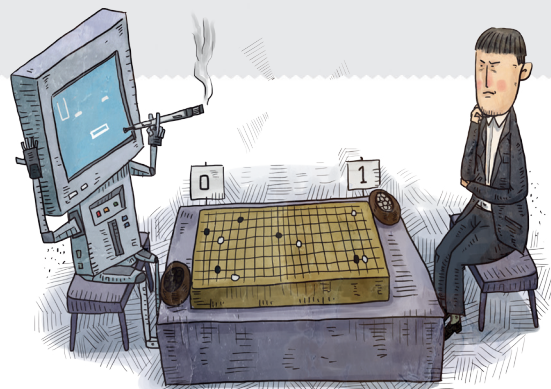
내리 3연패 후 전 세계인이 인공지능에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낄 때쯤 이 9단은 너무도 담담하게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간이 진 것은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 말은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이어 4국의 승리로 더욱 확실해졌다. 이 9단 스스로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1승이라고 했다. 실제 없는 존재에게 당한 3연패의 충격과 심적 압박감 속에서 이뤄낸 승리여서 더욱 감사한 일이었다. 세계 바둑계는 ‘인간 바둑기사의 자존심을 지켰

다’, ‘인간이 승리했다’는 등 찬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인간이 승리했다는 식의 표현은 앞으로 십여 년 내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이 될 정도로 인류 문명은 급변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AI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한 발 앞으로 다가온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견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국을 통해 우리가 인지해야 할 부분은 인공지능에 대한 경외나 두려움, 거부감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공지능의 개발과 투자는 물론 활용성에 대한 부분이다.

구글 딥마인드의 관계자들은 AI의 연구개발과 투자의 목적이 의료, 금융, 교육 등 생활 전반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결국 앞으로 인간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성 분야란 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과 투자는 이미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정부가 인공지능 육성방안과 관련 연구소 등을 설립한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점이지만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이 필요한 만큼 졸속 추진은 경계해야 한다. 우수인재들이 기초과학분야를 꺼리는 현실부터 개선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육성 방안은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출처: 중부일보 2016. 03. 17



활동 1. 기사에서 이세돌을 아름다운 인간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활동 2.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에 관해 적어봅시다.



활동 3. 아름다운 사람의 조건을 다섯 가지 작성해 보고, 짝과 비교하며 토론해 봅시다.

다섯 가지 조건	토론 내용

 **활동 4.** 인간의 아름다움을 소재로 한 영상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스토리보드(보는 사람이 스토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정리한 계획표)를 작성해 봅시다.

장면	시나리오

 **활동 5.** 추악한 인간과 아름다운 인간을 비교한 그림을 그려 봅시다.

추악한 인간

아름다운 인간

 **활동 6.**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시를 지어 봅시다.

 **활동 7.** 준비한 신문에서 아름다운 인물을 한 명 찾아 스크랩해 봅시다.

기사 제목	기사 요약	나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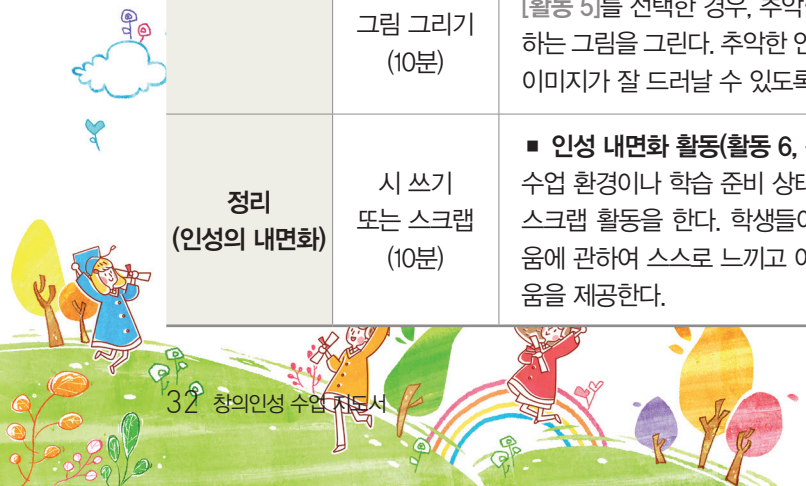


part.
07

사랑을
나누며 살자

주제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아름다움)				
대상		중학교 전학년	차시	1/1(45분)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관련 교과		국어, 도덕				
학습 목표	창의성	진정한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인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담아 표현할 수 있다.				
	인성	아름다움에 관해 고민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활동 방법		해당 기사를 분석하고, 짝과 아름다운 인간에 관한 생각을 나눈 후,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또는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내면화하는 글쓰기 또는 스크랩 활동을 진행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최근의 학생들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외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유의 사항
도입 (인성접근)	생각 열기	■ 브레인스토밍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참고자료: 아름다움에 관한 TED 강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60oyN-bi_09s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목표를 알려주고 오늘 수업 방향 및 진행 과정에 관해 안내한다.	
전개 (인성탐구)	기사 읽기 (10분)	■ 신문기사 읽어보고 각 질문에 답하기(활동 1, 활동 2) 활동 1: 의지와 집중력, 도전정신, 창의적 수 싸움 ... 활동 2: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많다. 그럴 때 자신을 다소 희생하고 양보하며, 자신감 있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평소에 내면이 아름다다고 생각한 사람을 떠올려보게 한 후 활동한다.
	토론하기 (10분)	■ 아름다운 사람의 조건에 관하여 짝과 토론하기(활동 3) 활동 3: 봉사하는 사람.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웃음이 많은 사람 등	아름다운 사람의 조건 5가지를 포스트잇에 작성한 뒤, 짝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한다. 설명을 들은 짝은 설명을 한 짝에게 인상 깊은 점이나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관하여 질문한다.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 아름다운 사람에 관하여 표현하기(활동 4, 활동 5 중 선택) [활동 4]를 선택한 경우, 본인이 아름다운 인간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장면들을 순서대로 스토리보드에 작성해 본다.	
	그림 그리기 (10분)	[활동 5]를 선택한 경우, 추악한 인간과 아름다운 인간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린다. 추악한 인간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인간의 이미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린다.	
정리 (인성의 내면화)	시 쓰기 또는 스크랩 (10분)	■ 인성 내면화 활동(활동 6, 활동 7 중 선택) 수업 환경이나 학습 준비 상태에 따라 글쓰기 활동 또는 신문 스크랩 활동을 한다. 학생들이 오늘 배운 인성요소인 아름다움에 관하여 스스로 느끼고 이해한 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몰입을 위해 적절한 노래를 틀어주면 좋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증오”... 시민들 ‘사랑의 찬가’ 합창

“나는 브뤼셀이다” 테러에 맞서 연대

브뤼셀=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23일 오전(현지 시간) 유럽의 수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주변. 전날 아침 출근길에 폭탄테러가 발생했던 말베이크 지하철역 주변에는 1km 전방부터 무장한 경찰과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기자가 다가가 사진을 찍으려 하자 경찰이 심각한 얼굴로 제지했다.

브뤼셀의 관광명소인 오줌싸개 소녀의 동상이 있는 ‘그랑 플라스’와 주변 식당가에는 평소엔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이날은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상점들도 낮부터 문을 닫았다. 시내 곳곳에서는 밤새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간간이 울려 퍼졌다. 브뤼셀 자네템 국제공항 테러범 중 1명이 현장에서 자폭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소식에 대대적인 검거작전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집 안에 대피했던 시민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하나둘 시내 한복판에 있는 증권거래소 앞 ‘라 부르스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벨기에 당국의 권고에도 시민들은 광장에서 꽃과 촛불을 바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광장 바닥은 흰색, 붉은색, 푸른색 분필로 쓴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들로 가득했다.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영어 아랍어 키릴어로 쓰인 애도 문구 중에는 ‘사랑으로 증오와 싸우자’ ‘살자, 살게 하자’ ‘사랑은 나의 종교’ 등 사랑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았다.

어떤 이들은 지난해 1월 프랑스 샤를리 에브



벨기에 위로하는 프랑스

21일(현지 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실린 만평. 프랑스 국기(왼쪽)가 벨기에 국기를 위로하는 내용이다. 인디펜던트 캡처

당국 “거리 나오지 말라” 권고에도

도심 광장에 모여 희생자 추모

예견된 테러 못 막은 정부 성토도

도 테러 때 나왔던 ‘나는 샤를리다’라는 문구를 빌려 ‘나는 브뤼셀이다(Je suis Brussel)’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들었다. 한 무리는 벨기에 국가와 프랑스 여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로 불렀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브뤼셀을 위해 기도해주세요’와 같은 문구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음악을 공부하는 한 젊은 청년이 첼로를 들고 나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곡을 연주하자 광장에는 엄숙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레퓔블리크 광장에서 한 청년이 피아노로 존 레논의 ‘이미진’을 연주했던 모습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벨기에 브뤼셀 시민들이 22일 도심 라 부르스 광장 바닥에 촛불과 꽃을 내려놓으며 이날 아침 공장과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이슬람국가(IS)’의 연쇄 폭탄 테러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브뤼셀=AP 뉴시스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광장에는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뿐 아니라 경계와 분노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브뤼셀 자유 대학생인 에스텔 씨(23·여)는 “지난해 파리 테러 이미지의 ‘데자뷰’(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 때문에 우리가 이미 테러를 경험한 듯한 느낌”이라며 “가장 최악은 어떤 테러가 발생해도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소 계단에서 만난 한 여대생은 “우리도

튀니지, 케냐, 파리처럼 테러가 일상화될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세바스티앙 씨(46)는 “브뤼셀은 지난해 파리 테러 이후 며칠간 학교와 상점 등 브뤼셀을 완전히 폐쇄하고 테러범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폭탄테러를 막지 못했다”며 예고된 테러를 막지 못한 정부를 성토했다. 미국의 테러 전문가들도 미 관련 기관들이 사전에 테러 가능성을 벨기에 당국에 수차례 경고했음을 지적하며 “벨기에 정부의 대테러

역량은 어린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고 미 온라인 신문 데일리비스트가 23일 보도했다.

이날 밤 광장에는 장클로드 웅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가 찾아와 헌화했다. 파리 에펠탑을 비롯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뉴욕 월드트레이드 센터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들은 적·황·흑색의 벨기에 국기를 상징하는 조명을 건물 외벽에 밝히며 애도와 연대의 뜻을 표했다.

※출처: 동아일보 2016. 03. 24

 **활동 1.** 위 기사에서 사랑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 적어봅시다.



 **활동 2.** 우리 사회에 사랑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세 가지만 말해 봅시다.



 **활동 3.** 최근에 사랑을 받거나 주었던 경험 사례를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활동 4.** 테러에 저항하는 ‘사랑’을 주제로 한 만평을 그려봅시다.



 **활동 5.** 존 레논의 imagine 가사를 참고하여 증오없는, 사랑이 가득찬 세상을 노래하는 가사를 작곡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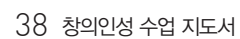
Imagine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봐요.
당신이 노력하면 어렵지 않아요.
지하에 지옥은 없어요.
머리 위에 오직 하늘이 있을 뿐.
모든 인간이 오늘을 위해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봐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죽이는 것도 없어요. 역시 신앙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평화롭게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몽상가라고 당신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난 몽상가가 아닙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겁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가담하게 되고
세계는 하나가 될 겁니다.
소유물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욕심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형제애와 인간애가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인간이 서로 도우며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의 가사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유의 사항
도입 (인성접근)	생각 열기	■ 영상학습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테러를 방지하는 방법에 관해 질문한다.	※ 영상자료: 전 세계 경악시킨 파리 테러...‘악마를 보았다’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0E0Gs-9RpjMU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목표를 알려주고 오늘 수업 방향 및 진행 과정에 관해 안내한다.	
전개 (인성탐구)	기사 읽기 (10분)	■ 신문기사 읽어보고 각 질문에 답하기(활동 1, 활동 2) 활동 1: 사랑은 인간 공동체가 유지되는 바탕이며,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수단이다. 활동 2: 사랑은 우리 사회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줄 수 있다. 사랑은 테러의 가장 큰 방패이다.	
	이야기 나누기 (10분)	■ 사랑을 주고받았던 경험을 짝과 나누기(활동3) 활동 3: 어버이날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 마음을 적은 편지와 카네이션을 드렸어.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고맙다고 말해주니 내 마음이 벅차올랐어. 앞으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전해야겠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보게 한 뒤, 사랑을 주었던 경험과 사랑을 받았던 경험을 짝에게 이야기한다. 짝은 이야기를 들은 뒤 질문한다.
	만평 그리기 가사 쓰기 (10분)	■ 사랑에 관하여 표현하기(활동 4, 활동 5 중 선택) [활동 4] 를 선택한 경우, 테러를 당한 브뤼셀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만평을 그려본다. 교사는 만평의 의미를 알려주고, 다양한 만평의 사례들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돕는다. [활동 5] 를 선택한 경우, 존 레논의 Imagine을 참고하여 테러를 당한 브뤼셀 시민들에게 들려줄 만한 증오에 대항하고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노래하는 가사를 써본다.	학생들이 만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례를 보여준다. 노래의 배경을 설명해 주어 학생들의 활동을 돕는다.
정리 (인성의 내면화)	편지 쓰기 또는 스크랩 (10분)	■ 인성 내면화 활동(활동 6, 활동 7 중 선택) 수업 환경이나 학습 준비 상태에 따라 글쓰기 활동 또는 신문 스크랩 활동을 한다. 학생들이 오늘 배운 인성요소인 사랑에 관하여 스스로 느끼고 이해한 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물입을 위해 적절한 노래를 틀어주면 좋다.



양심의 무게를 느껴보자

설왕설래

가정집에 침입한 강도가 가장 놀라는 것이 무엇일까? 언뜻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답이 아니다. 바로 거울이다. 강도는 사람을 만나면 칼을 들고 달려들지만 거울을 보면 흠칫 뒤로 물러선다. 거울에 비친 흉측한 자기 모습을 애써 피하는 것이다.

강도가 놀라는 것은 각자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이 ‘양심의 거울’이다. 실제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책상 위에 자신의 얼굴이 보이도록 거울을 놓아두었더니 부정행위가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거울을 설치해 양심을 자극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심은 항상 24시간 영업 중이다. 깜깜한 밤이 되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게으름을 피우는 법이 없다. 언제나 나의 내면에서 영롱한 빛으로 반짝거린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별과 같은 존재다. 칸트는 자신의

윤동주의 부활



묘비에 이런 글귀를 새겼다. “생각하면 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내 가슴을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가득 채워 주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 도덕률이다.”

시인 윤동주 역시 ‘마음의 별’을 간직한 존재였다. 칸트처럼 그 별 하나를 품고 철학 같은 어둠을 견뎠다. 그는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노래했다. 일제강점기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불면의 밤을 보냈을 시인의 모습이 그려진다.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기를 다짐한 시인의 고뇌가 가슴을 물결친다.

내년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시인이 부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 은평구에는 시인의 이름을 딴 도서관이 세워진다. 서점가와 스크린에서도 ‘윤동주 바람’이 분다. 고작 5억원을 들여 만든 영화 ‘동주’는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 100만명을 거뜬히 돌파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시카고, 워싱턴 등지에서도 곧 상영된다고 한다. 스물아홉의 짧은 삶을 산 시인의 순수한 영혼이 사람의 마음을 흔든 것이다.

양심이 갈수록 혼탁해지는 세상이다. “사람들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아나설 줄 알지만 양심을 잃어버리고도 찾아나설 줄 모른다”고 개탄한 맹자의 지적 그대로다. 강도의 도심(盜心)만 번뜩이고, 양심을 비추는 거울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 윤동주의 부활이 반갑다. 그나마 하늘에 영롱한 별 하나를 띄울 수 있을 터이니...
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출처: 세계일보 2016. 04. 04



활동 1. 위의 기사를 읽고 양심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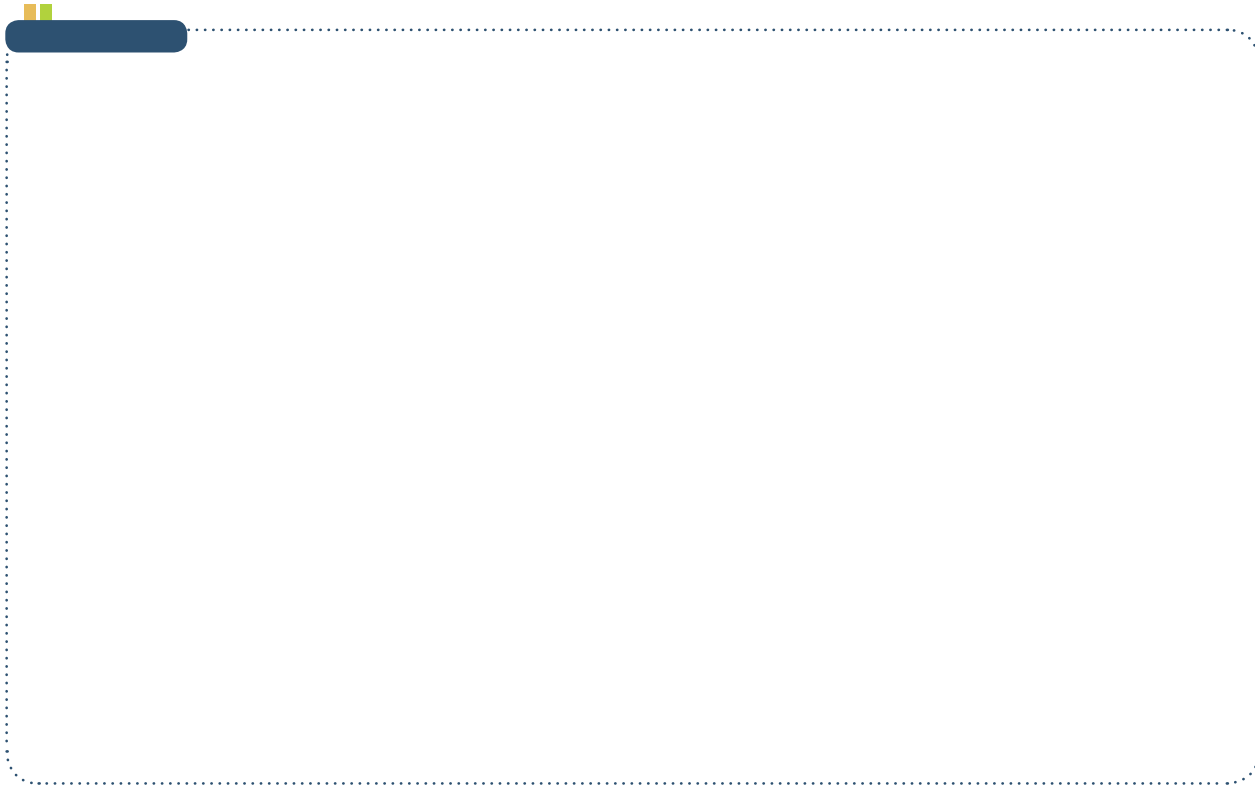


활동 2. 위의 기사를 읽고 양심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세 가지만 말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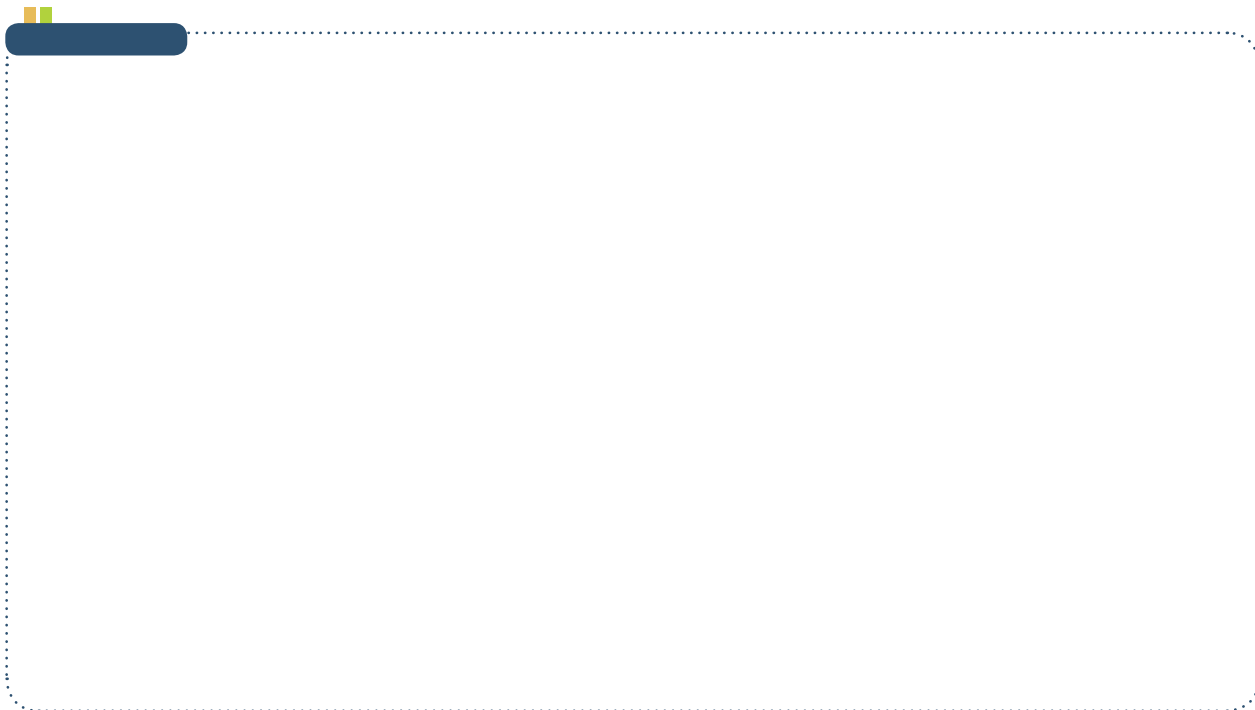


활동 3. 양심을 버렸던 경험 또는 양심을 지켰던 경험 사례를 써보고,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활동 4.** 나의 양심 모양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내가 지향하는 가치들로 채워 봅시다.



 **활동 5.** 우리 사회에 양심의 거울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활동 6.**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참고하여 나의 양심에 관한 시를 지어 봅시다.

서시(윤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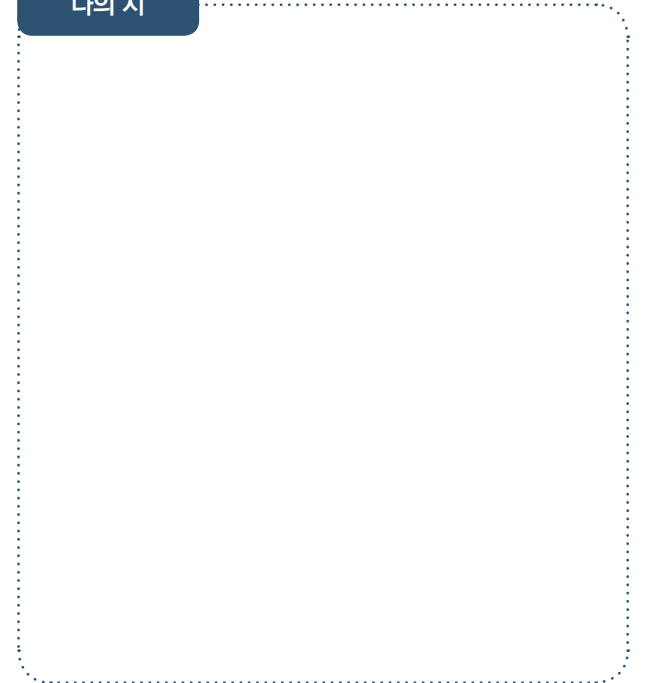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

나의 시



 **활동 7.** 신문에서 양심을 지킨(또는 버린) 인물에 관한 기사를 찾아 스크랩해 봅시다.

기사 제목	기사 요약	나의 생각



주제		양심의 무게를 느껴보자(양심)				
대상		중학교 전학년	차시	1/1(45분)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관련 교과		국어, 도덕, 미술				
학습 목표	창의성	양심의 의미를 표현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속에서 양심이 필요한 곳을 찾을 수 있다.				
	인성	양심의 무게를 느끼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진다.				
활동 방법		해당 기사를 분석하고, 양심을 버리거나 지켰던 경험을 나눈 후, 양심 모양 그리기 또는 양심의 거울이 필요한 사회문제 찾기 활동을 통해 양심의 무게를 표현하고, 양심을 내면화하는 글쓰기 또는 스크랩 활동을 진행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학생들은 양심을 가지고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양심을 지켰을 때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다양하게 말해주고, 모두가 양심을 지키는 사회를 상상하도록 한다.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유의 사항
도입 (인성접근)	생각 열기	■ 영상학습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잠깐 눈을 감고 나의 양심을 생각해 보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 영상자료: [생각하는 사전] 양심 https://www.youtube.com/watch?v=kAMziV-gYRiU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목표를 알려주고 오늘 수업 방향 및 진행 과정에 관해 안내한다.	
전개 (인성탐구)	기사 읽기 (10분)	■ 신문기사 읽어보고 각 질문에 답하기(활동 1, 활동 2) 활동 1: 자기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도덕적인 행동과 생각을 이끄는 나침반. 활동 2: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지킨다면 사회문제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 양심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다.	학생들의 다양한 대답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한다.
	경험 나누기 (10분)	■ 양심을 버리거나 지켰던 경험을 짝과 나누기(활동 3) 활동 3: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10,000원을 주워, 가지고 싶었지만 참고 학교 분실물 담당 선생님께 전달했다. 나는 이를 전에 아무도 보지 않아 다 먹은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길바닥에 버렸다.	양심을 버리거나 지켰던 자신의 경험을 학습지에 써본 뒤, 짝에게 당시의 감정과 함께 이야기해 본다. 짝은 이야기를 들은 후 질문한다.
	그림 그리기 문제 찾기 (10분)	■ 양심에 관하여 표현하기(활동 4, 활동 5 중 선택) [활동 4]를 선택한 경우, 수업 시작 때 본 영상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양심의 모양을 그린 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그 안에 써본다. 교사는 순회하며 학생들이 해당 단어를 쓴 이유를 질문한다. [활동 5]를 선택한 경우,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해 떠올려보고, 기사에서 말한 양심의 거울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써본다. 교사는 순회하며 학생들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리 (인성의 내면화)	시 쓰기 또는 스크랩 (10분)	■ 인성 내면화 활동(활동 6, 활동 7 중 선택) 글쓰기 활동 또는 신문 스크랩 활동을 한다. 학생들이 오늘 배운 인성요소인 양심에 관하여 스스로 느끼고 이해한 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몰입을 위해 적절한 노래를 틀어주면 좋다.

part.

09

행복의 조건을 알아보자

여적(餘滴)

교황의 행복 십계명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하지만 칼 부세의 시처럼 “산 너머 저쪽에 행복이 있다기에 찾아갔다가 눈물만 흘리고 돌아왔네”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플라톤은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먹고살 만한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처지는 용모, 자만심에 비해 사람들이 절반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정도의 체력, 청중의 절반만 박수를 쳐주는 말솜씨. 평생 ‘무소유’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제시해온 법정 스님은 행복론도 맑고 향기롭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 것, 움켜잡기보다는 쓰다듬을 것, 오래된 것을 아름답게 여길 것, 가끔 기도할 것. 칼 힐티는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마주보고, 상대방에게 자기를 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다.

프랑수아 플로르의 소설 <꾸삐씨의 행복 여행>에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23가지 조건이 나온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등이

다. 꾸삐씨는 여행에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런 경구가 적힌 카드를 선물한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수의 ‘산상수훈’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행복선언’이다. 예수는 갈릴리 호숫가에 물려든 군중에게 ‘행복에 이르는 여덟 가지 길’을 선포한다.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슬퍼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의에 굶주린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따르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역사적인 방한을 앞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행복지침 10가지’를 제시했다고 한다. “가족과 식사할 때는 TV를 꺼라. 일요일만큼은 아이들과 지내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태도, 삶을 인정해라. 개종(改宗)을 강요하지 마라. 겸손·친절·여유를 가져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라.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해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평화를 위해 행동해라.” 참 소박한 내용이지만 오히려 울림이 크다.

김석종 논설위원

※출처: 경향신문 2014. 08. 04

행복은 관계 속에 있다

‘행복의 조건’ 빅데이터 분석

55% “가족·친구와 함께 할 때”
2위 건강... 일상도 15%나 꼽아
‘뽕뽕뽕해드 머니’는 8% 불과
“富=행복은 옛말... 점차 다양화”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요건은 돈보다는 원만한 대인관계나 건강 유지 등이 꼽혔다. 반면 최근 각종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행복의 가장 큰 조건으로 꼽은 돈은 하위로 밀렸다.

빅데이터 분석업체 타파크로스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년간 트위터와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 올라온 게시물 95만664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분석 결과 대인관계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글이 95만6640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서 대인관계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행복을 언급하면서 (행위를) 함께 한 대상이 부모나 부부, 자녀, 친구 등을 언급한 경우다.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 행위로는 여행(27%·14만3982건)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결혼(26%·13만8649건), 선물 주고받기(20%·10만6653건), 커피마시기(14%·7만4657건), 영화보기(13%·6만9325건) 순이었다.

특히 결혼과 관련해서는 결혼식장이나

결혼생활에서 행복감을 표현했다.

행복을 느끼는 이유 중 대인관계 다음으로는 ‘건강’이 22%(20만5465건)를 차지했다. 건강은 다양한 운동이나 식단을 언급한 경우다. 운동 가운데는 헬스가 2만8460건(28%)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22%·2만2361건), 요가(21%·2만1345건), 등산(11%·1만11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15%·13만3922건)도 행복의 소중한 요소였다. 음악(27%·3만6159건)을 듣거나 커피(20%·2만6784건)를 마시고, 책(9%·1만2053건)을 읽는 등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악을 듣는 평범한 일상에서 보통 사람들은 행복을 느꼈다.

반면 돈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표현은 6만4761건으로 행복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8%에 그쳤다. 돈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언급된 경우가 많았다.

신지혜 타파크로스 전임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SNS상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술한 의견에서 삶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추출해 행복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찾기 위한 시도였다”며 “과거 경제적 번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행복이 이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추구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도 “최근 여러 조사에서 학생 연령층이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많이 꼽아 우려스럽다”면서 “행복의 조건을 단정짓기는 쉽지 않지만 보통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 2014. 06. 17



활동 1. 위 기사를 읽고 행복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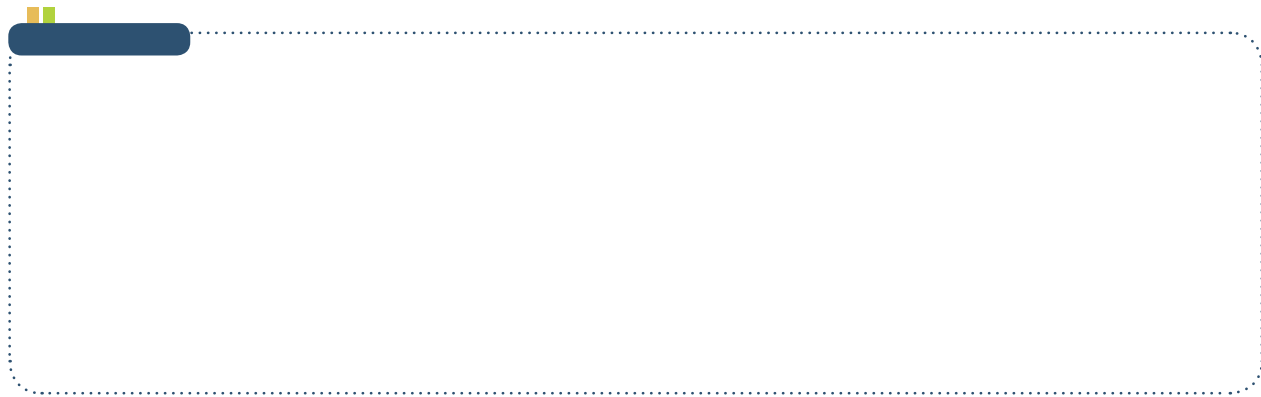


활동 2.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생각해 보고 세 가지만 말해 봅시다.



활동 3. 행복의 조건을 다섯 가지 생각해 보고, 짝과 비교해 가며 토론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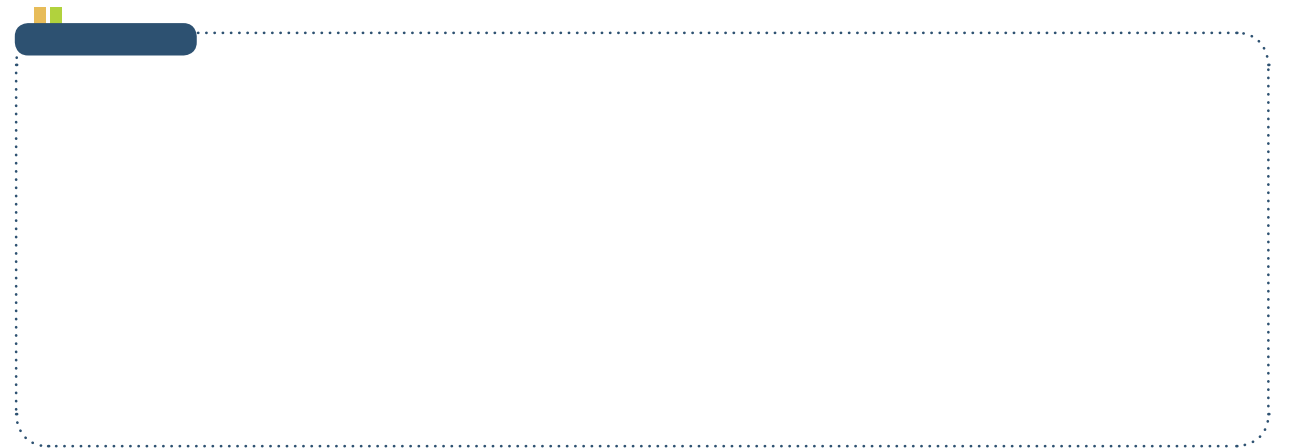
 **활동 4.** 행복한 미래의 나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활동 5.** 이번 주에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보며, 감사했던 인물 한 명을 선정하여 감사편지를 작성해 봅시다.



 **활동 6.** 내가 정한 행복의 조건을 근거와 함께 주장하는 글을 써 봅시다.



 **활동 7.** 신문에서 가장 행복한 인물에 관한 기사를 찾아 스크랩해 봅시다.

기사 제목	기사 요약	나의 생각



주제		행복의 조건을 알아보자(행복)				
대상		중학교 전학년	차시	1/1(45분)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관련 교과		국어, 도덕, 사회				
학습 목표	창의성	행복의 조건을 탐구하고, 행복에 관해 다방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인성	삶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자세를 갖는다.				
활동 방법		해당 기사를 분석하고, 행복의 조건을 나눈 후, 미래의 삶 그리기 또는 감사편지 쓰기 활동을 통해 행복을 표현하고, 행복을 내면화하는 글쓰기 또는 스크랩 활동을 진행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학생들은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현재 삶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유의 사항
도입 (인성접근)	생각 열기	■ 영상학습 영상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해주세요.”라고 질문한다.	※ 영상자료: 행복이란? https://www.youtube.com/watch?v=yzS2e0WsMv4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목표를 알려주고 오늘 수업 방향 및 진행 과정에 관해 안내한다.	
전개 (인성탐구)	기사 읽기 (10분)	■ 신문기사 읽어보고 각 질문에 답하기(활동 1, 활동 2) 활동 1: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등 활동 2: 용돈을 모아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렸는데, 부모님이 기특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다. 좋아하던 이성친구에게 고백을 했는데 이루어져 행복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대답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한다.
	토론하기 (10분)	■ 행복의 조건을 짝과 나누기(활동 3) 활동 3: 나는 행복한 가정,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 꿈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편안한 휴식시간,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다섯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붙임 종이(포스트 잇)에 작성한다. 행복의 조건 한 개에 붙임 종이 한 장을 사용한다. 붙임 종이를 바탕으로 짝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짝은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내용에 관해 질문한다.
	그림 그리기 편지 쓰기 (10분)	■ 행복에 관하여 표현하기(활동 4, 활동 5 중 선택) [활동 4]를 선택한 경우, 40살, 50살, 60살 중 자신이 원하는 시점을 선택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다양한 조건들이 반영된 모습을 간단하게 그려본다. 순회하며 학생들이 해당 단어를 쓴 이유를 질문한다. [활동 5]를 선택한 경우, 잠깐의 침묵을 통해 지난 일주일을 회상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을 ‘금주의 나의 인물’로 선정된 뒤 감사의 편지를 작성한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회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인성의 내면화)		■ 인성 내면화 활동(활동 6, 활동 7 중 선택) 글쓰기 활동 또는 신문 스크랩 활동을 한다. 학생들이 오늘 배운 인성요소인 행복에 관하여 스스로 느끼고 이해한 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몰입을 위해 적절한 노래를 틀어주면 좋다.



“힘내라, 네팔” ... 그들의 눈물 닦아주려 지구촌 뭉쳤다

네팔 81년만의 대지진

SNS로 참상 전하고 피해자 위로
기부금 모금 ‘캐시태그’도 등장
유니세프 “아동 94만명 도움 필요”

美-러 등 15개국 구조대 급파
텐트-의약품 구호물품 지원 나서
한국도 119구조대-신속대응팀 파견

26일 오후 1시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리히터 규모 6.7의 여진이 일어나자 한 임시 막사에서 아이들이 울면서 뛰어나왔다. 대부분이 이번 지진으로 부모를 잃고 구조된 아이들인데 이들은 하루에 한 번 다른 나라 긴급 구호팀이 트럭에서 던져주는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10세 안팎의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소년소녀가장이 돼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다. 물을 구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틀째 손도 씻지 못하고 지진이 일어난 집 근처의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이날 “지진으로 인해 최소 94만 명의 네팔 아동이 인도주의적인 도움의 손길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 ‘힘내라 네팔’

세계 최빈국의 참사를 목격한 국제사회는 ‘힘내라 네팔’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각국 유명인사와 일반인들의 격려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네팔을 위해 기도하자(#Pray for Nepal)’라는 해시태그(특정 내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는 27일 ‘네팔의 안전을 기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유명 팝가수 샤키라도 트위터에 기부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내 누리꾼들도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더는 희생자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네팔!’이라고 기원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7일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네팔 현지로 보내기로 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우리 불자와 국민이 한시라도 빨리 도와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휴대전화로 구호단체에 곧바로 기부할 수 있는 ‘캐시태그(cashtag)’도 나왔다. 미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은 유니세프 등에 바로 기부가 가능한 ‘cash.me/\$unicef’ 사이트를 만들고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네팔을 위해 기도하자’ SNS 추모

‘더집시주얼’이란 이름을 쓰는 한 서양 누리꾼이 자신의 트위터에 촛불 사진을 올려 네팔 대지진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현재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네팔을 위해 기도하자(#Pray for Nepal)’는 내용으로 각국 누리꾼들이 올린 위로와 격려 메시지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더집시주얼 트위터

했다.

비정부기구(NGO)의 대응은 민첩했다. 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진으로 접근로가 끊기자 지진 현장 부근에 대형 창고 3곳을 마련해 잠자리 등 기본적 구호물품을 배분하고 있다. 국경 없는 의사회(MSF)도 3000개의 의료 세트를 보냈으며 아메리케어스, 핸디캡 인터내셔널(HI) 등 구호 단체도 네팔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

● ‘네팔을 돕자’

이번 재난 구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목하던 미국과 러시아도 한뜻으로 동참했다. 참가국 간의 대립과 분쟁도 일시에 멈췄다.

미국은 26일 버지니아 주에 있는 긴급 재난 구호팀 등 70명과 45t의 원조물자를 실은 군용기를 보냈다. 러시아도 26일 지진 구조 활동 경험이 풍부한 90명의 구조대원과 구조 장비 등을 태운 수송기 2대를 우선 보내기로 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도 구조대를 보냈다.

중국도 26일 오전 구조대원 등 62명을 구조 현장에 보내 지진 발생 24시간 이내에 구조작업에 들어갔다. 중국을 견제해 왔던 인도도 26일 공군 비행기에 구호물품 43t과 구조대원 200명을 긴급 파견했다. 유럽위원회는 300만 유로를 긴급 구호 자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긴급 구호자금 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교회의 산하 해외원조기구인 한국 카리타스도 특별 모금에 나서기로 했다. 개신교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모금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유엔에 따르면 26일 현재 15개의 국제 구조 및 수색팀과 14개 의료 지원팀이 네팔로 향하고 있다.

베이징=구자롱 특파원 bonhong@donga.com / 하정민 기자

※출처: 동아일보 2015. 04. 28

 **활동 1.** 위의 글을 읽고 공감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봅시다.

 **활동 2.**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네팔 주민의 입장에서 간단한 일기를 써 봅시다.

 **활동 3.** 공감을 받았던 경험(또는 공감 받지 못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고, 짝과 토론해 봅시다.

 **활동 4.** SNS에 최근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가상의 글을 작성해 올려 봅시다.

 **활동 5.** 기사 속 네팔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활동 6.** '공감'을 주제로 사설을 써 봅시다.

 **활동 7.** 공감해 주고 싶은 인물에 관한 기사를 찾아 스크랩해 봅시다.

기사 제목	기사 요약	나의 생각



주제		공감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자(공감)				
대상		중학교 전학년	차시	1/1(45분)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관련 교과		국어, 도덕, 사회, 미술				
학습 목표	창의성	공감을 바탕으로 기사를 그림 또는 글로 번역하며 공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인성	공감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을 이해하고, 타인을 공감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활동 방법		해당 기사를 분석하고, 공감을 받거나 받지 못했던 경험을 나눈 후, 가상의 SNS 게시물 쓰기 또는 기사 속 내용 그림으로 옮기기를 통해 공감을 표현하고, 공감을 내면화하는 글쓰기 또는 스크랩 활동을 진행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현대의 학생들은 경쟁적이고 성취중심적인 환경에서 자라 공감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학생들에게 공감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일상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유의 사항
도입 (인성접근)	생각 열기	■ 영상학습 영상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공감할 때 사용하는 맞장구의 언어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한다.	※ 영상자료: 공감과 경청(애니메이션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kt7ljL5rDw4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목표를 알려주고 오늘 수업 방향 및 진행 과정에 관해 안내한다.	
전개 (인성탐구)	기사 읽기 (10분)	■ 신문기사 읽어보고 각 질문에 답하기(활동 1, 활동 2) 활동 1: 공감은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는 일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능력이다. 활동 2: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공감 능력이 최근 각광받고 있음을 설명한다. 지난 경험에 대해 잠깐의 영상을 한 후, 공감을 받거나 받지 못한 경험의 스토리와 느낌을 학습지에 적고 짝에게 이야기한다. 짝은 해당 이야기에 대해 공감한 뒤, 질문한다.
	경험 공감하기 (10분)	■ 공감 받거나 받지 못했던 경험을 짝과 나누기(활동 3) 활동 3: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 조퇴를 했다. 그런데 친구가 너 아파서 조퇴하니 좋겠다는 말을 했다. 순간 공감받지 못한 기분이 들어 속상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10분)	■ 공감에 관하여 표현하기(활동 4, 활동 5 중 선택) [활동 4]를 선택한 경우, 핸드폰을 이용하여 최근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과 관련한 사진, 영상 등의 미디어 자료를 첨부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게시글을 작성한다. [활동 5]를 선택한 경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네팔 주민의 입장에서 기사에서 표현된 시점의 네팔의 상황을 잘 나타내는 그림을 그린다.	
정리 (인성의 내면화)		■ 인성 내면화 활동(활동 6, 활동 7 중 선택) 글쓰기 활동 또는 신문 스크랩 활동을 한다. 학생들이 오늘 배운 인성요소인 공감에 관하여 스스로 느끼고 이해한 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준다.	몰입을 위해 적절한 노래를 틀어주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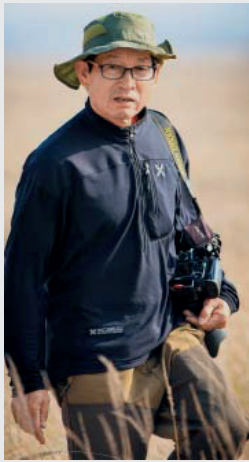


대평원으로 변한 바다에 생명이 찾아왔다



박종인의 땅의 歷史

시화 대평원과
시화호 지킴이 최종인



시화호를 지키는 최종인

하묵했던 우음도와 윤수심

윤수심은 목포 여자다. ‘갯것’ 많다는 소문 듣고 한 살 아래 남편이랑 우음도로 왔다. 60년 전이다. 우음도는 지금 경기도 안산과 화성 사이 군자만에 있는 섬이다. 남쪽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로 우음도 바다는 풍요로웠다. 굴살 앞바다에는 피조개가 널렸다. 구녕물 앞살에는 꽃게와 송어가 잡혔다. 공새 뒤편 갯벌에는 바지락이 지천이었다. 대나무 막대 하나 들고 바다로 가서 조개를 잡아 부러놓으면 도매상이 트럭에 싣고 도시로 가곤 했다. 실한 물건에 기분이 좋았던 장사치들 덕에 우음도 여자들은 외지 관광도 하곤 했다. 남정네들은 밤새 화투판을 벌여 돈을 잃어도 개의치 않았다. 갯벌에서 담배 한 대 태우며 조개 한 지게 건져내면 그 돈 벌충하고도 남았으니까.

마을 앞바다에는 각시당이 있었다. 돌아오지 않는 신랑을 기다리던 각시가 물에 빠져 죽은 압초였다. 3년에 한 번씩 마을 사람들은 곳을 올렸다. 갯벌 옆 나락부리 화나무에서 각시당을 향해 절을 하면 무당이 바위를 향해 초혼을 했다. 마을 안에 있는 화나무와 뒷산 꼭대기에 있는 당집에 제사를 마쳐 지내고, 사람들은 숲속 균용

당 당집에 모여 하루종일 놀았다. 화나무 아랫집에 이사 왔던 영감은 화나무가 성가시다며 가지를 잘랐다가 며칠 뒤 죽었다. 1979년 11월 1일 각시당 너럭바위 위에 군 초소가 들어섰다. 깨름칙했지만 사람들은 참았다. 나라 위한 일이라니까. 몇 년 사이에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길로 왕복하며 근무를 서던 군인 여럿이 물에 빠져 죽었다. 초소는 폐쇄됐다. 어느 날 텃밭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배어도 배어도 끝없이 자라났다. 갯벌에서 바지락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검은 바다에서는 썩은내가 풍겼다. 윤수심이 말했다. “내 이름이 수심이니께, 수심 가득 살라는 거였제.” 1987년 6월 시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시화’는 시흥과 화성에서 따온 말이다. 이후 시화호 주변 마을 남정네들은 화투판을 벌이지 않았고, 배를 타지 않았고, 평생 못 갖게 펴고 살던 허리와 어깨는 순식간에 휘어버렸다.

분노한 사내 최종인

그 무렵 서울 살던 최종인이 안산으로 이사를 왔다. 안산은 우음도에서 물으로 더 들어가 있다. 최종인이 말했다. “나는 국민학교 졸업장이 전부다. 두 손으로 옛장수 가위를 치면서 고물상 하던 아버지 따라다닌 기억이 난다.”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고, 1989년 정착한 안산 반월공단에서 시설 자동화 기사로 일했다. 마흔네 먹은 사내는 삶이 팍팍할 때면 바다로 가서 망둥어 낚시를 했다. 푸른 바다에서 원 없이 낚시를 즐기고 조개를 줍고 새를 관찰했다. 그가 말했다. “반월전 상류 쓰러기 매립장에 갔더니 까마귀들이 썩은 음식 먹고 있더라. 저놈들이 언제 죽을까 싶어 매일 가봤다. 아허, 죽기는커녕... 그러면 인간도 저런 원리로 환경오염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

어느 날 갯벌에서 악취가 나더니 조개껍데기가 갯벌을 뒤덮었다. 연원을 찾아 바다 끝까지 가보니 대부도 산 하나가 사라지고 그 토석으로 방조제가 건설되고 있었다.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빠져대갈 구멍이 없이 간혀 버렸고, 갯벌과 물고기와 물속 식물들도 함께 썩고 있었다. 20세기 말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시화호 사태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초대규모 토목사업에 고물상 아들이 반기를 들었다. 최종인은 퇴근하면 시화호로 나갔다. 그가 말했다. “나를 위로해주던 바다가 지옥으로 변했다. 어찌 가만있을 수 있겠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네가 이런 짓을 하나”는 아버지 최달봉이 말하면 아들은 이리 대



1999년 2월 시화호 풍경. 폐수가 열음을 녹이며 흐르는 죽음의 공간이었다. 조선일보 DB

1994년 방조제 완공... ‘죽음의 땅’이 된 시화호

비옥한 바다 잃은 사람들은 뿔뿔이 떠나가고...

최종인 같은 고집쟁이 덕택에 정부도 손들어

지금은 생명 가득한 自然 환생... 인기 여행지로 부상

들었다. “누가 하겠소. 돈 가진 사람이 하겠소? 내가 해야지.”

폐수 방류, 썩은 바다, 죽은 물고기 떼와 갈매기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화호 사태 초기 사진들은 모두 그가 찍은 사진이다. 공청회에도 갔다. “시화호 바다는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 평가 전문가에게 “죽은 조개껍데기만 모아도 저 방조제를 만들 수 있다”고 사진을 내밀고 숫자를 내밀었다.

시화호의 사망 선고와 부활

1994년 1월 24일 12.7km에 달하는 물막이 공사가 완공됐다. 바다였던 시화 호수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 물고기도 사라지고 물고기를 잡는 새들도 사라졌다. 포도밭과 배추밭은 말라붙은 갯벌에서 날아온 염분으로 초토화됐다. 1997년 여름 학자들은 시화호를 무생물대(無生物帶)로 선언했다. ‘단 한 마리, 단 한 포기 생명체도 발견되지 않는’ 4000만 평짜리 지옥이 바다를 가르고 모습을 드러냈다.

최종인은 그 과정을 사진과 글로 꼼꼼히 기록해 언론에 알렸다. 개발업자와 주민들로부터는 ‘개발 방해자’ 낙인이 찍혔다. 시민단체들이 움직였다. 시화호를 둘러싼 안산시와 화성시, 시흥시가 반대로 돌아섰다. 정부는 그해 3월 방조제 감문을 열어 바닷물을 끌어들었다. 언론은 최종인을 ‘시화호 지킴이’라고 불렀다.

1998년 7월 시화호 동쪽 섬에서 최종인은 딱새가 기어올라가는 붉은 바위 속에 서 타원형 화석을 발견했다. 바위 생김도, 색깔도, 화석 생김도 희한했다. 최종인은 중생대 지층에서 공룡 화석이 나온다는

신문 기사가 떠올랐다. 그래서 학자들에게 답사를 요청했다. 결론은 공룡 알이었다. 아득한 옛날 육지였던 시화호 일대는 공룡들 집단 서식지임이 드러났다. 건조한 갯벌 아래 무엇이 또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2000년 3월 문화재청은 공룡 알 화석 발견 지역 480만평을 천연기념물 414호로 지정했다. 그해 12월 정부는 시화호를 막으려던 계획을 공식 포기했다. 땅으로 변했던 바다가 환생(還生)했다.

자연이 스스로 치유한 상처

바다였던 시화호가 호수로 변했고, 절반은 이제 땅이 되었다. 땅과 호수는 죽음의 공간이었다. 그 땅이 지금 전국 최대 규모 조류 서식지이자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 노랑부리백로와 노랑부리저어새, 원앙, 황조롱이, 참매, 뜰부기, 수리부엉이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이 흔하게 날아온다. 바닷물이 돌아온 호수에는 최종인 표현대로 “물 반 고기 반”이다.

소금기 먹고 사는 염생식물과 물에서 날아온 씨앗이 자란 육상식물이 공존한다. 세월이 가면서 염생식물에서 육상식물로 생태계가 바뀌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 삼, 고라니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공존한다. 군데군데 뿌리내린 나무들과 무성한 갈대와 띠풀이 만든 이국적인 풍경에 사람들이 몰려와 웨딩 사진을 찍고 작품 사진을 찍는다. 아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공룡 알을 구경하며 하루를 보낸다. 도무지 10년 전 죽음의 땅이라 불렀던 곳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 공룡알을 발견한 이듬해인 1999년 최종인은 안산시 환경과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짬짬이 하던 시화호 감시 작업이 직업이 됐다.

최종인이 말했다. “새들이 돌아왔다. 모든 것이 돌아왔다는 뜻이다. 학자들이 30년이 걸린다고 했던 부활이 불과 10년 만에 이뤄졌다. 원칙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바다였던 땅을 바다에 돌려준 것뿐. 그다음은 다 자연이 스스로 치유했다.”

땅의 사람들, 땅을 찾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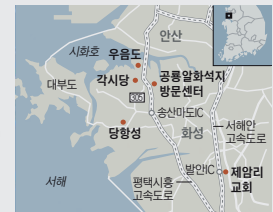
환경을 맞은 2013년 최종인은 수리부엉이 동지를 감시하다가 12m 절벽에서 추락했다. 목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졌다. 새끼 두 마리가 하도 시끄럽게 울아대서 녹음기를 꺼냈는데, “손가락이 부러져서 버튼을 못 눌렀다”고 투덜댄다. 전문계약직으로 전환된 최종인은 더 바쁘다. 동물이 늘어난 만큼 밀렵꾼이 늘었다. 지난 3월 그 수리부엉이 동지를 귀신같이 찾아내 나무들을 베어내고 플래시까지 터뜨리며 사진을 찍어간 생태사진가님도 감시 대상이다. 밤 근무는 다반사다. “자살한 시신도 여러 구 수습했고 비 오는 밤에 호수를 수습이 돌아다녔다. 그런데 귀신은 없다. 정말이다.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 죽었는데 무슨 혼이 돌아다녀.” 그 덕에 최종인은 귀신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 공부 못 한 한은 자연에서 다 풀었다. 이 광활한 땅을 바라. 이게 보물이다.”

텃밭 매던 호미를 던지며 윤수심이 말했다. “떠날 데가 어딴어. 예서 살다 죽어야지. 근데, 옛날처럼 마을이 화목하듯 못해.” 당당은 여전히 뒷산 꼭대기에 있다. 윤수심에 따르면 “노인들 열댓명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데모를 했지만” 코앞에 전 망대가 들어서서 각시당을 볼 수가 없다. 우음도 쪽 간척지는 개발이 진행 중이다. 말끔하게 깎아놓은 사료용 초원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한창이다. 각시당 초소에는 사진가들이 새벽부터 나타난다. 땅은 역사다. 지난 세기 말 나라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던 시화호 소동도 역사다. 그 역사 책 한 장(章)이 단했다. 이제 새로운 장에서 기록을 기다린다. 여행문화 전문가



우음도 사람들이 신성시했던 바위 각시당. 1979년 이 바위에 군 초소가 들어섰다. 지금은 폐허다.

시화호 여행수첩



1.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 시화호 간척지에 있다. 오전 9시~오후 5시. 공룡 알 화석지 출입은 오후 4시30분까지. 나무 데크 산책로가 있다. 센터는 월요일 휴관. 송산면 공룡로 659, (031)357-3951
2. 송산그린시티 전망대: 시화호 대평원과 호수를 360도 조망할 수 있다. 전망대 뒤에 있는 당집을 꼭 볼 것. 오전 10시~오후 5시. 월요일 휴관.
3. 제암리교회: 공식 명칭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1919년 4월 15일 일본군이 제암리 주민 23명을 교회에 가두고 총을 쏜 뒤 방화한 사건을 기리는 공간. 지난주 처음으로 이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오전 9시~오후 5시. 월요일 휴관. 향남읍 제암길 50, (031)369-1663



시화호 공룡알 화석.

4. 당항성(화성당성): 삼국시대 당나라와 교류하던 산성. 을 초 ‘唐’ 자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됐다. 원효 대사가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득도한 동굴도 이 부근으로 추정된다. 왕복 1시간 안 걸리는 산행길이 좋다.

 **활동 1.** 시화호의 푸른 물이 검은 빛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의 심정을 써 봅시다.



 **활동 2.** 시화호 개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각 사람의 입장에서 시화호 개발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해 봅시다. 또한 자신이 공청회에 참석했다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지에 대해서도 말해 봅시다.

시화호 개발 공청회


사회자


정부대표


화성시장


환경단체


최종인


나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 시화호 개발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 하시겠습니까?

 **활동 3.** 시화호 개발을 강행하는 정부를 상대로 혼자 반대 운동을 하는 최종인 씨의 주장을 이해하는 친구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했을지 적어 봅시다.



 **활동 4.** 최종인 씨의 사례에서 배울 점을 쓰고, 이것을 자신의 일상생활과 결부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배울 점

내가 할 수 있는 일



 **활동 5.** 시화호 사진전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포스터를 제작해 봅시다.

포스터 작성 요령

1. 최종인 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인성 덕목을 넣어 포스터 제목을 쓰세요.
2. 신문에서 시화호의 과거와 현재를 묘사하거나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 사진을 각각 찾아서 스크랩 하세요.
(사진이 없다면 직접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3. 기간, 장소, 사진전 소개글 등을 쓰세요.

제목 쓰는 곳

그림 혹은 이미지

- 기간 :
- 장소 :
- 소개 :

주제		나도 할 수 있다(용기)			
대상		중학교 전학년	차시	1/1(45분)	준비물
관련 교과		국어, 도덕, 사회			
학습 목표	창의성	개발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탐구한다.			
	인성	한 사람의 용기와 노력이 죽음의 공간을 생명의 보고로 탈바꿈시킨 과정을 소개하며 엄청난 변화가 한 사람의 용기로부터 비롯됨을 느끼도록 한다.			
활동 방법		시화호를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 어려운 일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시화호의 생태계 변화를 부각시키는 사진전 포스터를 제작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개인의 역할이나 우연적인 사건(공룡알 발견)이 개발을 중지시켰다는 관점보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개인의 용기가 죽음의 땅을 생명의 호수로 바꾼 동 인임을 이해하도록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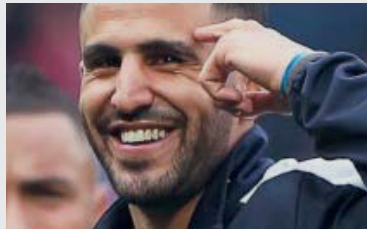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유의 사항
도입 (인성접근)	생각 열기	■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해 발표한다. ※ 브레인 라이팅을 이용할 수도 있음.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찾아보고, 우리가 해결 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 제시 - 학습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전개 (인성탐구)	입장 정리	■ 신문 기사를 읽고, 주민들의 심정을 추론해 본다. ‘슬프다’, ‘안타깝다’와 같이 짧은 감정적 표현보다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인들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환경 오염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도록 한다.
	가치 분석	■ 다양한 관점에서 시화호 개발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 본다. ※ 공청회 상황을 가정하였으므로 대화체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가치 탐구	■ 최종인 씨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이라면 어떤 충고를 했을지 생각해 본다. - 최종인 씨에게 배울 수 있는 인성 덕목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 덕목과 관련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 본다.	개발이나 보존에 관한 토론은 지양한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바꾼 모습에 주안점을 둔다.
	행동	■ 내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하기 - 내가 용기 내어 할 수 있는 일을 써본다. ※ 사회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일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적용	■ 시화호 사진전 개최 포스터 만들기 - 시화호의 과거와 현재를 이미지로 표현하여 가상의 사진전을 기획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본다.	
정리 (인성의 내면화)	정리	■ 용기 있는 삶의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한다.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 4와 연계시킨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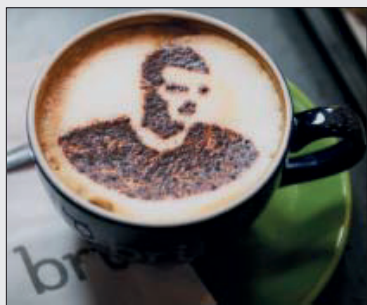
0.02%...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찾아오지 않는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끝까지였던 레스터 시티, 프리미어리그 우승



마레즈

1991년 프랑스 사르셀 출생
빈민가 길거리에서 축구 시작
이적료 2년 만에 7억 → 520억원
영국 프로선수협회 '올해의 선수'로



바디치노 등장 영국의 한 커피숍이 레스터 시티의 공격수 제이미 바디를 거품으로 표현한 커피를 내놓았다. 이 커피의 이름은 '바디치노'다.



꼬마 발레리나도 레스터 시티 영국 레스터의 꼬마 발레리나들이 레스터 시티의 팀 컬러인 파란색 발레복을 입은 모습. 사진을 찍으려 하자 울음을 터뜨린 세 살 동생을 일곱 살 언니(오른쪽)가 달래는 장면이다.

노동절 휴일이었던 2일(현지 시각) 저녁 영국 레스터(Leicester) 시민들의 눈은 일제히 TV를 향했다. 화면에선 토트넘과 첼시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다. 레스터 시티가 이날 리그 우승의 영광을 안기 위해선 2위 토트넘이 첼시와 비기거나 패해야 했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연속 골로 전반을 2-0으로 앞섰다. 첼시는 후반 13분 팀 케이힐이 한 골을 만회했다. 레스터 시티 팬들이 간절히 첼시의 동점골을 바라던 후반 38분 에덴 아자르가 오른 발로 감아 찬 슈팅이 그림처럼 골망에 꽂혔다. 그 순간 잉글랜드 중부의 인구 30만 도시 레스터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2대2로 경기가 끝나면서 레스터 시티는 1884년 창단 이후 132년 만에 정상에 등극했다. 꼬마 팬부터 80대 노인까지 모든 레스터 시티 팬이 처음 맛보는 1부 리그 우승의 감격이었다.

지난 시즌 꼴찌를 달리다 1부 리그에 간신히 턱걸이한 레스터 시티의 올 시즌 목

표는 프리미어리그 잔류였다. 팀이 선수들에 지급하는 총연봉은 800억원으로 첼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팀이 가질 수 있는 현실적 목표였다. 레스터 시티 주전 라인업 11명의 이적료(팀 끼리 주고받는 돈)총합(400억원)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009년 레알 마드리드로 갈때 기록한 이적료(1300억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클라우디오 라니에리(65·이탈리아) 감독은 "다른 팀이 수영장을 갖춘 빌라에 산다면 우리는 지하실에 산다"고 했다.

하지만 레스터 시티는 거짓말처럼 초반부터 치고 나가더니 23라운드부터는 계속 선두를 유지하다 우승을 확정했다. 자분이 넘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흙수저' 팀이 보여준 반란에 세계 팬들은 열광했다.

레스터 시티 우승의 주역으로 이른바 '라·바·마(라니에리·바디·마레즈)' 3총사가 손꼽힌다. 올 시즌을 앞두고 레스터 시티의 지휘봉을 잡은 라니에리는 감독 인생 30년 만에 15번째 팀에서 처음 1부 리그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그는 첼시와 인터밀란, AS로마, 유벤투스 등 수많은 명문 클럽을 이끌었지만 정상 정복에는 실패했다. '우승 청부사'로 불리는 주제 무리뉴 전 감독은 라니에리를 '루저'(패배자)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라니에리는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았다. 그는 "레스터 시티는 포레스트 검프 같은 팀"이라고 했다. 쉬지 않고 뛰는 영화 주인공 검프처럼 많이 뛰고 헌신적인 선수들을 중용해 수비를 안정시켰고, 긴 패스로 한 방의 역습을 노리는 작전을 썼다. 그는 성공하고 싶은 선수들의 열정을 깨우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돈으로 이기는 세상? 아니더라
선수단 총 연봉은 맨유의 4분의 1
0.02% 우승확률을 현실로 만들어

우승 뒤엔 '라바마 삼총사'
루저라고 조롱받던 라니에리 감독
라커룸서 록음악 '파이어' 틀고
선수들 마음속의 불꽃 피워내
바디·마레즈 등 설움 딛고 펄펄

지금 영국은 레스터 신드롬
빵·커피·옷에 레스터 색깔 푸른색

숫자로 본 레스터 시티 우승

0.02%	시즌 전 우승 확률
1번째	라니에리 감독의 최초 1부 리그 우승
2시즌	1부리그 승격 두 시즌 만에 정상
11경기	바디가 세운 최다 연속 골
132년	창단 후 우승까지 시간
400억원	베스트11 총 이적료. 손흥민 한 명 수준
800억원	선수단 총 연봉. 첼시의 1/4
2500억원	우승으로 얻을 기대 수익

리그 첫 경기 때는 라커룸에서 록밴드 카사비안의 '파이어'를 틀었다. 훈련 시작 때는 선수들에게 종소리를 뜻하는 "딜리딩 딜리딩(dilly-ding, dilly-dong)"이란 말을 마음속으로 외치게 했다고 한다. 라니에리는 "선수들이 마음속으로 종을 울리며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을 찾길 원했다"고 했다. 이런 조련 속에 올 시즌 22골을 기록하며 불을 뿜은 선수가 제이미 바디(29·잉글랜드)였다.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토트넘-첼시전을 관전한 바디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게 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프랑스 7부 리그에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한 리아드 마레즈(25)도 레스터 시티에서 팔자가 바뀌었다. 2014년 이적료 7억원에 레스터 시티로 온 그는 올 시즌 17골 11도움을 기록하며 불과 2년 만에 빅클럽들이 500억원이 넘는 이적료를 앞세워 러브콜을 보내는 스타가 됐다.

맨유 유스 출신이지만 1군 데뷔를 하지 못하고 맨유를 떠났던 미드필더 대니얼 드링크워터는 레스터 시티에서의 활약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에 승선했다. 전설적인 골키퍼 피터 슈마이켈의 아들인 캐스퍼 슈마이켈은 골문을 든든히 지키며 비로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적 같은 우승에 각계의 찬사가 쏟아졌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정말 놀랍고 가치 있는 우승'이라고 했고, 팝 스타이자 토트넘 팬인 아델은 '역대 최고의 스토리'라고 썼다. 북아일랜드의 골프 스타 로리 매킬로이는 '북아일랜드의 유로 2016 우승 확률은 1/500이다. 참고로 레스터 시티의 우승 확률은 1/5000이었다'는 글을 남겼다.

장민석 기자

레스터 때문에 태국이 난리났네

구단주, 태국 킹파워그룹 회장
종종 승리 초청, 선수들에게 氣

레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가장 열광하는 지역은 당연히 연고지인 영국 레스터일 것이다. 그다음은 어디일까. 레스터에서 9500km가량 떨어진 태국 방콕에선 레스터 시티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술집마다 팬들이 모여 열띤 응원을 펼친다.

레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열린 지난 1일 저녁엔 방콕 시내에서 600여명의 팬이 거리 응원을 했다. 태국 방콕 수완나품공항에는 빅클럽인 맨유나 아스널이 아닌 레스터 시티 팬숍이 자리 잡고 있다. 레스터 시티가 태국의 '국민 구단'이 된 이유는 구단주가 태국인이기 때문이다.

올 시즌 레스터 시티 선수들은 가슴팍에 'King Power'라는 글자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다. 태국 면세점 기업인 킹파워그룹의 비차이 스리바다나 프라바 회장은 2010년 레스터 시티를 인수했다. 3조원이 넘는 개인 자산을 보유한 그는 홈 관중에게 공짜 맥주와 도넛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곧잘 연다.

태국 문화도 팀에 스며들었다. 스리바다나프라바 회장은 태국에서 종종 승리를 초청해 레스터 시티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운다. 그들은 라커룸까지 들어와 선수들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는다.

최근 각종 축구 사이트엔 '레스터 시티가 우승하면 나는 불교로 귀의하겠다'는 유럽 축구 팬들의 글이 봇물을 이루었다.

장민석 기자

※출처: 조선일보 2016. 05. 04.



(나)

내부갈등에 무너지는 한국사회 ⑥

“동료 공격해야 내가 생존”... 한국판 배틀로얄

〈고교동급생간 생존 게임 영화〉



시리즈 순서

- ① 갈등에 무너지는 사회
- ② 불만을 넘어선 '원한'
- ③ 좌절을 넘어선 '포기'
- ④ 피로를 넘어선 '탈진'
- ⑤ 불안을 넘어선 '강박'
- ⑥ 경쟁을 넘어선 '고투'
- ⑦ 격차를 넘어선 '단절'
- ⑧ 불신을 넘어선 '반감'
- ⑨ 갈등을 넘어선 '단죄'
- ⑩ 전문가 좌담

“아이 학급에서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회장이 됐다. 알고 보니 반 아이들이 일부러 그 친구를 뽑았더라. 학급 임원을 하면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받게 되는데, 아이들끼리 단합해 가산점을 받아도 아무 소용없는 아이를 회장으로 만든 거였다. 라이벌에게 가산점이 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52·가정주부)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한 주부가 전하는 고등학교 학급 회장 선거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그러진 경쟁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선의의 경쟁은 개인·기업·국가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된다. 자원이 빈곤한 후발 개발국가인 우리나라가 놀라운 경제성취를 이룬 배경에는 사회의 치열한 경쟁 분위기가 생산적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 즉 경쟁을 넘어선 투쟁의 정서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한국형 사회 갈등 실태진단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경쟁이 상생과 협력보다는 ‘승자독식사회’ ‘제로섬 게임’식으로 변모해가는 현실을 염려했다. 연구진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출현한 경쟁 사회의 ‘속살’은 경쟁을 넘어선 투쟁의 구도를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사회가 이 같은 극단적인

학교에선 라이벌에게
반장 가산점 빼앗길까봐
성적 낮은 친구 떠밀어

회사에선 승진 밀릴까봐
“후배에 낮은 평점줘라” 강요

경쟁을 하게 된 배경은 ‘불안을 넘어선 강박’ 증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사회에서 낙오하면 끝”이라는 두려움과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에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상대방을 이기는 것만을 경쟁의 최종 목적으로 삼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승자독식 사회에서는 능력이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협력하고,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창의를 키우는 일이 어렵게 된다.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역사는 출생신고부터 시작된다. 12월에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다음해 1월로 출생신고를 허위로 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아이에게 ‘가짜

생일’을 갖게 하면서까지 출생신고를 허위로 하려는 이유는 12월생이 되면 유치원-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 과정에서 발육이 빠른 또래 아이들보다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한 부모는 “12월에 출생신고한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 시 연초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10개월가량 선행학습에서 뒤지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 출생통계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2월과 이듬해 1월 출생신고 건수를 비교하면 1월에는 출생신고가 30% 급증하는 추이가 계속 나타난다.

생존을 위한 고투는 입사 이후 더욱 치열해진다. 제한된 승진 기회를 놓고 다수가 경쟁해야 하는 회사에서 ‘윈윈(Win-Win)’은 생각하기 어렵다. 국내 한 대기업에서 3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B씨(29·여). 그는 인사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선배들이 보여주는 ‘꼼수’ 때문에 화가 치민다. 인사철마다 팀원들을 서로 상대평가해 등급을 매기도록 하는데, 회사 선배들이 자신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위해 자신 아래의 후배들에게는 낮은 평점을 주라고 강요하고 있어서다. 그는 “회사에서 경쟁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가해 또는 공격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처절하게 살아남는 선배들의 모습은 현실에서 펼쳐지는 ‘배틀로얄’인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배틀로얄’은 2000년 제작된 일본 영화로, 무인도에 갇힌 고등학생들이 생존을 위해 동급생끼리 서로 목숨을 빼앗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연구진은 “한국 사회에서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경쟁의 형태가 ‘내가 아니면 내가 죽는’ 투쟁적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인이 맞이하고 있는 경쟁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도 서슴지 않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무한경쟁의 장 속에서 낙오하는 것에 대한 집단적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김희래 기자

※출처: 매일경제 2016. 03. 04.



활동 1. 경쟁과 협동은 무엇인지 정의해 봅시다.(구체적인 상황이나 행동을 예로 들어 표현해도 좋습니다.)

경쟁이란?

협동이란?



활동 2. 자신이 레스터 시티의 선수라면 아나운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지 써 봅시다.(괄호에 자신의 이름을 쓰세요. 또한 포지션과 나이 등 간단한 프로필을 적어도 좋습니다.)

아나운서

레스터 시티의 우승으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계신데, 우승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활동 3.** 다음은 00고등학교 반장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태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쓰고, 활동 2의 축구 선수가 학급 학생들에게 강연을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대화체로 작성해 봅시다.

“아이 학급에서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회장이 됐다. 알고 보니 반 아이들이 일부러 그 친구를 뽑았더라. 학급 임원을 하면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받게 되는데, 아이들끼리 단합해 가산점을 받아도 아무 소용없는 아이를 회장으로만 든 거였다. 라이벌에게 가산점이 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서울 서초구·52·가정주부)

※출처: 매일경제, 2016년 3월 4일자 일부 발췌

원인	
문제점	





활동 4. 글 (가)와 (나)의 공통점은 협동입니다. 빈 칸 A, B에 '협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제목을 정해 보세요. 또한 두 사례에 나타난 협동의 모습을 정리하고, 위 상황에서 자신이 득점왕이 되었을 때와 반장이 되었을 때의 심정을 써 봅시다.(단, A는 (가), B는 (나) 글을 참고하세요.)

	A(가)	B(나)
협동 모습	득점왕이 되었을 때 심정 반장이 되었을 때 심정	
협동 결과		

활동 5. 대입, 취업, 승진... 앞으로 여러분이 당면한 과제들입니다. 경쟁이 과열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해 보고, '선의의 경쟁'의 정의와 경쟁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경쟁이 과열된다면?

선의의 경쟁이란?

그림으로 표현하기

주제		함께 더불어 살자! (협동)			
대상		중학교 전학년	차시	1/1(45분)	준비물
관련 교과		국어, 도덕, 사회			
학습 목표	창의성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활동으로 경쟁과 협동을 비교한 뒤, 경쟁과 협동의 바람직한 방법과 태도를 모색한다.			
	인성	타인과 협동할 경우 나와 상대방에 대해서 가져야할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극단적인 경쟁으로 내몰려 협동의 가치가 잘못 실현된 예를 통해 바람직한 협동의 태도와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한다.			
활동 방법		경쟁, 협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기초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올바른 경쟁과 협동의 모습을 찾아 그 속에 내재된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무조건적인 협동은 의존적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으로서 경쟁과 협동을 이해하고,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올바른 가치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유의 사항
도입 (인성접근)	생각 열기	■ 사회적 활동으로서 경쟁과 협동 학습자가 경쟁과 협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도록 질문한다.	학습자가 개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표현하도록 한다.
	학습 목표	■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방향과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전개 (인성탐구)	기사 읽기	■ 경쟁과 협동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고, 각 개념에 대한 의미 적어보기 ※ 학생들이 개념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표현하도록 한다.	반장 선거는 협동이 잘못 실현된 예로 제시하고, 협동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한다.
	협동의 가치	■ 협동의 성공 사례에서 생각해 보기 축구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가 되어 우승 소감을 발표해 본다.	
	협동이 잘못 실현된 예	■ 00 고등학교 반장 선거의 문제점과 원인을 탐구하기 협동을 통해 목적을 실현했으나 그들의 행위가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협동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경쟁의 모습을 도출하도록 한다. (선의의 경쟁)
	가치 확인	■ 협동의 가치 내면화하기 축구 선수가 00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협동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적용 (이미지 표현)	■ 경쟁의 바람직한 모습 그림으로 표현하기 ※협동만을 중시하지 않도록 바람직한 경쟁의 모습을 정의하고 그림으로 표현한다.	
정리 (인성의 내면화)	가치의 내면화	■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협동과 경쟁의 모습을 제시한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

여자 혼자사는 집... 쓰레기 보고 알까 겁나

내달 ‘쓰레기 주소 실명제’ 시행
수원 영통구 지자체·주민 충돌

“개인 쓰레기에 집 주소를 붙여 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사생활 침해입니다.”

지난 24일 수원시 영통구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누리꾼 A씨가 한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다. 수원 영통구청이 다음 달 2일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한 ‘쓰레기 봉투 실명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쓰레기 봉투 속에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적힌 메모라도 있으면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 아니냐”면서 “쓰레기만 봐도 여자 혼자사는 집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런 정책에 동참하라는 거냐”고 했다. 누리꾼 수백 명이 이 글에 공감하는 옹호 댓글을 달면서 쓰레기 봉투 실명제 논란은 인터넷 상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개설된 ‘쓰레기 봉투 실명제 반대’ 서명운동엔 4000명이 넘는 누리꾼이 참여했다.

영통구의 쓰레기 봉투 실명제 정책은 각 가정이나 업소가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 위에 주소를 적으라는 것이다. 사업자는 업소명과 주소를 모두 봉투에 부착된



실명제 스티커 표기 방식
(주민) ○○아파트 ○동 ○호
(사업자) ○○구 ○로 ○길 ○기업

수원시 영통구청이 다음 달 2일부터 ‘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실시 중인 평창군의 쓰레기 봉투(왼쪽).

마구잡이식 버리기 줄여
평창서 성공하자 벤치마킹

주민들 “사생활 노출” 항의 빗발
구청측 “시범 시행” 한발 물러서

스티커에 적어야 한다. 아파트와 개인 주택은 주민 이름은 적지 않는 대신 ○○아파트 ○동 ○호 식으로 상세 주소를 써야 한다.

영통구는 실명제를 도입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일이 줄고, 분리수거가 활성화돼 전체적인 쓰레기양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리수거를 지키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10만~20만원의 과태료도 물릴 수 있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것으로 본다”며 “주소를 쓰게 하는 것은 자기가 버린 쓰레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행하기도 전에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항의 전화를 하루 수십 통씩 쏟아내며 반발하자, 구청 측은 “시범적으로 한 달간 시행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영통구가 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작년 수원시 4개 구 가운데 쓰레기 감축 실적이 가장 부진했기 때문이다. 구청 직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강원 평창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평창군에서는 작년 6월 진부면 주민들이 먼저 “쓰레기에 이름을 써서 내지”고 군청에 건의해 실명제를 시작했다. 예상 밖으로 쓰레기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나오자 지금은 군 전체로 확대됐다. 실명제 실시 이후 평창군의 쓰레기 배출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평창군은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종량제 봉투는 5일간 수거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 등을 함께 담아 버린 주민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쓰레기 봉투 가운데 85%가 실명제를 준수하고 있다. 평창군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주민들 사이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쓰레기가 줄어들고 동네가 깨끗해지는 것을 본 주민들이 더 만족해한다”고 했다.

이 정책이 항상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서울 광진구 구의2동 주민센터는 15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6개월간 ‘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주민들 항의가 끊이지 않아 결국 중단됐다.

이슬비 기자

※출처: 조선일보 2016. 04. 27.



활동 1. 현재 영통구 환경 공무원들의 고민을 <고민 게시판>에 두 가지만 써 보세요. 그리고 ‘쓰레기 주소 실명제’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고민 게시판>

<쓰레기 주소 실명제>

배출 대상자	쓰레기 배출 방법
개인	
사업자	



활동 2. 유형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례입니다. ‘유형 2’에 ‘유형 1’의 쓰레기를 분리하여 바르게 정리해 봅시다.

유형 1(무단 배출)



유형 2(분리 배출)



 **활동 3.** ‘쓰레기 주소 실명제’가 성공한 지역과 실패한 지역의 원인이 무엇인지 쓰고, 해당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 봅시다.

	평창	서울시 광진구
원인		
지역 주민의 생각이나 느낌		

 **활동 4.**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화의 일부분입니다. 70대 노부부에게 쓰레기 문제 해결 방법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했는지 작성해 봅시다.

2016년 1월 24일 오후 4시 30분쯤 폭설이 한창 쏟아지고 있는 제주공항에 한 70대 노부부가 담요에 무엇인가를 한아름 싸들고 찾아왔다. 제주관광공사 안내데스크를 찾은 이 노부부는 모포를 풀어헤치고 삶은 고구마와 계란, 감귤을 꺼내놓았다. 노숙 중인 관광객들에게 간식을 직접 나눠주던 노부부는 “어 모포다!”라고 외치는 체류객에게 모포까지 내주었다. 고구마가 식기라도 할까봐 싸가지고 온 모포였다. 신분을 묻는 공사 직원에게는 “뉴스를 보다가 하도 기가막혀서 왔다”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발걸음을 돌렸다.

이날 오후 7시쯤 이 노부부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아내 대신 딸과 함께였다. 종이상자를 탁자에 올려놓은 할아버지는 고구마 100여 개를 삶아서 왔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양이 많아서 모포도 2개를 이용해야 했다. “아까 오셨던 분”이라고 환영하는 공사 직원에게 “잘못 봤어요. 처음이에요”라고 애써 부인한 이 할아버지는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돌아선 할아버지를 따라가 확인한 결과 제주시 도남동에 사는 윤모(74) 할아버지였다. 윤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갔다가 마트에서 고구마를 사다 삶은 뒤 다시 버스를 타고 공항을 찾았다”며 “그동안 박수받는 봉사활동은 많이 해봤으니 이번에는 조용히 돕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라일보, 2016년 1월 25일자 일부 발췌

노부부 제안 내용

 **활동 5.** 우리 주변에는 쓰레기 문제 외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봅시다.

문 제

해결 방법



주제		우리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 (의무)				
대상		중학교 전학년	차시	1/1(45분)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관련 교과		국어, 도덕, 사회				
학습 목표	창의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다.				
	인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고, 시민의 의무 이행과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성 덕목을 내면화시킨다.				
활동 방법		주민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 때문에 고민하는 담당 공무원의 마음을 이해하고, ‘쓰레기 주소 실명제’를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개인에게 있음을 깨달아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이 수업의 목적은 쓰레기 주소 실명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으므로 쓰레기 주소 실명제에 대한 논의보다는 쓰레기 문제가 파생된 배경에 초점을 두고, 개인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유의 사항
도입 (인성접근)	생각 열기	■ 쓰레기와의 전쟁,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쓰레기. 쓰레기 문제의 근본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본다.	쓰레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생각하도록 한다.
	학습 목표	■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방향과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전개 (인성탐구)	기사 읽기	■ 신문 기사를 읽고, 주민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의 심정은 어떤지 생각해 보기 ※ 정책 제안은 문제 인식으로부터 도출된 해결 방안이므로 문제 인식은 공무원의 고민으로, 해결 방안은 쓰레기 주소 실명제로 나타나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해한다.	1) 쓰레기 문제의 근본 해법이 개인에게 있음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2)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을 배우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버린 쓰레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사회 탐구	■ 쓰레기 분리수거 하기 쓰레기를 줄이도록 분리 배출 요령을 경험한다.	
	가치 탐구	■ 쓰레기 주소 실명제가 성공한 지역과 실패한 지역 주민들의 가치와 태도 탐구하기	
	적용 및 이해	■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 해결하기 의무가 아닌 다른 태도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한다. ※ 폭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노부부의 역할을 통해 의무가 아닌 새로운 인성적 접근을 시도해 본다.	
	의사 결정	■ 쓰레기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 찾기 쓰레기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은 개개인의 마음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정리 (인성의 내면화)	적용	■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와 해결 방법 제시하기 내면화된 가치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본다.	

part.

14

선(先), 선(善),
선(線)을 지키자

악플의 악순환...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악플

혈통을 비

“재는 육먹을 자격 있어. 저런 애는 죽어야 됩ㅋㅋㅋ. ○○야 자살 좀 해라. 니까짓 쓰레기 죽어버려. 악플 보고 자살하라고ㅋㅋㅋ.”

한 누리꾼이 인기 걸그룹 멤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남긴 글의 일부다. 수차례에 걸쳐 자살을 종용하는 자극적인 댓글 달기를 반복했다. 보다 못한 다른 누리꾼이 “악성 댓글(악플)을 저장해 소속사에 보냈다”며 그만둘 것을 요구했지만 댓글 세례는 멈추지 않았다. 익명의 공간에 숨어 입에 담지 못할 글을 쓰면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것이다.

“저런 애는 죽어야됨ㅋㅋ” “딸을 악어 먹이로 주라” 악플 70%는 초·중고생이 달아

지난달에는 SNS 악플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집 안에서 악어를 키우는 것으로 SNS에서 유명세를 탄 A씨(대전 거주)가 딸을 욕하는 댓글에 격분해 보복에 나선 것이다. A씨가 살아 있는 동물을 악어 먹이로 주는 동영상 올리지 광주광역시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딸을 갈아서 악어 먹이로 주라”는 내용의 악플을 달았다. 격분한 A씨는 친구 3명과 함께 광주로 건너가 댓글을 쓴 이를 찾아내 보복 폭행을 했다. 지난해에는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에 비유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FNC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 30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FNC엔터테인먼트는 걸그룹 AOA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다. “악성 댓글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근거 없

는 비방글이 나돌자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을 비롯한 악성 댓글 관련 범죄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2년 8544건이었던 범죄 건수는 2013년 8866건, 2014년 888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5년에는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난 1만 5043건에 달했다. 2013~2014년 사이버 관련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5만5366건에서 14만4679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명예훼손과 관련한 악성 댓글 범죄는 반대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최준영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팀장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피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이유가 크다”며 “한 사람이 수십 명을 동시에 고소하는 사례도 많아져 집계된 범죄 건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명예훼손을 이유로 온라인 글을 수정해달라고 방통위에 요구한 심의 건수는 2013년 2472건에서 2015년 2835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윤리 의식이 희박한 초·중

하지 못한다. 친구들 사이에 장난스럽게 쓰는 단어를 여과 없이 키보드로 쏟아낸다. 오픈마켓에서 마음 터놓을 곳을 찾지 못한 아이들이 온라인 공간을 감정을 분출하는 곳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발표

메일·문자메시지(7.6%)가 사이버폭력의 주무대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한 비중은 전체 중 절반이 넘는 51.8%에 달했다.

악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중 59.1%가 피해 경험이 있고, 피해 학생의 43.7%는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상에서 욕을 먹던 피해자가 돌변해 남을 욕하는 것으로 대리만족하는 ‘악플의 악순환’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최민식 이화여대 교수는 “어린 학생들이 온라인 공간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며 “악플 문제를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이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초기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는 집단에서 사이버폭력을 가하는 비중(22.8%)은 그렇지 않은 집단(13.0%)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학생이 온라인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비율은 27.1%에 달해 비교집단(13.1%)의 두 배가 넘었다. 일상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온라인에서 남을 공격하며 ‘강자가 된 듯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부터 악플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최 팀장은 “악성 댓글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한때 실수로 인생의 발목이 잡히지 않게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댓글 범죄 폭발적 급증
악플에 격분해 보복폭행까지
전문가 “학교 초기교육 필요”

·고 학생들은 큰 자각 없이 악플 세례에 동참하고 있다. 온라인 기록 삭제 업체 ‘산타크루즈컴퍼니’에 따르면 전체 악성 댓글의 65~70%를 청소년이 작성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글을 올렸을 때 법에 저촉되거나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초4~고3) 학생의 14%가 지난 1년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생(17.1%), 중학생(16.9%)은 물론 초등학생(8.1%)까지 악플 달기에 가담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www.moonjung7bl.co.kr

현대건설

KTX수서역을 가장 가깝게 누리는
송파 문정 현대지식산업센터

2016년 KTX수서역이 H 비즈니스파크와 가장 가깝게 개통(예정)됩니다.

※출처: 매일경제 2016. 04. 04.

“인터넷 명예훼손엔 엄한 처벌 받는다는것 알려야”

여기준 인터넷윤리학회 이사



“익명성이 사이버 폭력을 부추기는 게 사실입니다. 온라인으로 남을 괴롭히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널리 알려야 해요.”

여기준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이사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그것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데도 이를 인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함부로 키보드를 놀리다가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증폭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라며 “자기 생각에 맞는 글에는 과도하게 좋은 댓글을 달면서, 반대 내용을 접하면 이성과 논리가 사라진 공격적인 글을 올리는 게 사람 심리”라고 말했다.

온라인 세계에서는 내재된 공격성이

훨씬 강하게 표출된다는 것이다.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서 야한 동영상을 서슴없이 내려받거나 거래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여 이사는 한국 특유의 ‘인터넷 게시판 문화’가 문제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PC통신’으로 인터넷 세상을 접한 한국에서는 익명 기반의 게시판 문화가 유난히 발달해 그 맥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 사이트를 보면 불특정 다수가 마음대로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인터넷 실명제’ 등 조치는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하자 초기에는 몸을 사린 사람들이 표현을 자제했지만 곧 다시 비방성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이라는 게 여 이사 주장이다. 그는 “차를 몰아보지 않은 어린이들이 ‘음주운전은 나쁜 것’이라고 인지하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 잘됐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앞장서 인터넷 문화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매일경제 2016. 04.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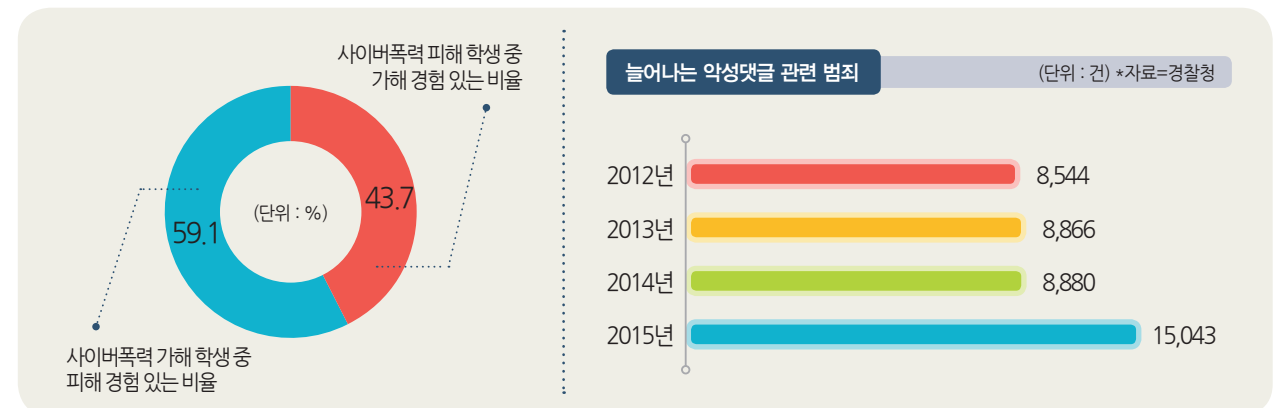


활동 2. 악플을 받아보거나 보낸 경험이 있었나요? 육하원칙에 따라 과거의 경험을 정리해 보고, 그때 기분이나 느낌을 써 봅시다.

	악플을 받았을 때	악플을 보냈을 때
악플 내용		
경험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기분이나 느낌		



활동 3. 다음은 악플 관련 통계자료입니다. 왜 피해자가 악플의 가해자가 되는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보고, 이들에게 적절히 조언해 봅시다.



악플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이유

진실을 담은 조언



활동 1. 다음은 인기 걸그룹 SNS에 담긴 글입니다. 네티즌은 어떤 잘못을 했고, 이는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뒷글에서 찾아 써 보세요

“재는 욕먹을 자격 있어. 저런 애는 죽어야 됴ㅋㅋ. ㅇㅇ야 자살 좀 해라. 니까짓 쓰레기 죽어버려. 악플 보고 자살하라고ㅋㅋ.”

– 잘못된 점 :

– 범죄 유형 :



활동 4. '인터넷 악플 문화를 개선하자'는 주제의 글을 쓰고, 모둠원들과 <활동 방법>을 참고하여 선(善)하고 선(線)을 지키는 댓글을 달아봅시다.

활동 방법

1. 4인 1모둠을 구성한다.
2. 주제에 적합한 의견을 게시판에 작성한다.
3. 시계 방향으로 자신의 게시글을 모둠원에게 건넨다.
4. 모둠원의 게시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적는다.
5. 자신의 게시글을 다시 받으면 모둠원이 쓴 댓글을 읽는다.

<게시판>

RE.

작성자: ()

RE.

작성자: ()

RE.

작성자: ()

RE.

작성자: ()

RE.

작성자: ()



활동 5. 악플을 받거나 보냈을 때와 비교해, 위와 같은 리플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써 봅시다.



주제		선(先), 선(善), 선(線)을 지키자(준법)			
대상		중학교 전학년	차시	1/1(45분)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색연필 또는 싸인펜			
관련 교과		국어, 도덕, 사회			
학습 목표	창의성	통계 자료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유용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한다.			
	인성	악플을 달았을 때와 받았을 때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악플이 주는 개인적·폐해를 고민하며, 악플이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이해하여 법을 지키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활동 방법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나 게임상에서 악플 피해를 입은 사례자들의 글을 인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느껴보고, 악플러가 늘어나는 원인을 이해하며 모둠원과 선플 달기 활동을 통해 인터넷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도록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악플은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한다. 악플러가 많아지면서 악플을 하나의 인터넷 문화로 이해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악플을 받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악플을 보낸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도록 한다.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유의 사항
도입 (인성접근)	생각 열기	■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제시한다. 악플로 입은 피해 사례들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악플로 인한 경험이나 느낌에 대해 질문한다. ※ 검색창에 ‘악플피해’라고 입력하면 많은 자료를 검색할 수 있음.	유명인의 피해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피해 사례를 제시한다.
	학습 목표	■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방향과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전개 (인성탐구)	기사 읽기	■ 신문 기사를 읽고, 악플의 폐해와 악플의 위법성 이해하기 유명 연예인이 받은 악플을 사례로 제시하고, 잘못된 점과 범죄 유형에 대해 탐구한다. ■ 악플에 대한 경험 써보기 악플을 보냈거나 받은 기억을 살려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악플은 단순한 놀이나 장난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폭력임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자료 분석	■ 통계 자료를 보고, 악플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원인 탐구하기 악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악플러가 되는 이유를 탐구한다.	
	가치의 내면화 및 행동	■ 인터넷 악플 문화 개선하기 인터넷 악플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한 뒤, 도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의견을 공감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작성해 본다. ■ 법을 지키면서 리플을 주고받았을 때 느낌 경험하기	
정리 (인성의 내면화)	가치의 일관성	■ 인터넷 악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올바른 습관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 선한 말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part.

15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꽃길이지 아니라 지옥”... 벽화 지우는 벽화마을 사람들

서울 종로 이화마을 해바라기·잉어계단 사라져... 무슨 일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이화마을. 휴대폰 카메라를 든 중국인 관광객 랑모(34)씨가 좀처럼 셔터를 누르지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랑씨가 한국에 오기 전 인터넷에서 미리 찾아봤던 벽화 ‘해바라기 계단’은 온데간데 없고 계단이 회색 페인트로 덧칠된 상태였다.

계단 옆쪽 벽면에는 붉은색 래커로 ‘주거지에 관광지가 웬말이나, 주민들도 편히 쉬고 싶다’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랑씨는 결국 이 벽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돌아섰다. 그는 “(벽면에 쓰인 글씨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어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이 해바라기 계단에서 약 140m 떨어진 또 다른 명물 ‘잉어계단’도 회색 페인트로 덧칠돼 잉어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이화마을의 대표 벽화 해바라기 계단이 사라진 건 지난 15일 오후 8시쯤이다. 주민 3명이 20분 동안 61개 계단에 걸쳐 타일을 이어붙여 만든 꽃 그림 위에 회색 페인트를 칠했다. 주민 박모(25)씨는 “이 곳에 벽화가 생긴 이후 밤낮 없이 소음과 낙서, 쓰레기 투척에 시달렸다”며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 이웃 주민 34가구의 동의를 받아 벽화를 지웠다”고 했다. ‘잉어계단’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덧칠이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누가 벽화를 훼손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 해화경찰서는 박씨 등 페인트칠을 한 주민 3명을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상인과 주민을 포함해 140여가구가 살고 있다. 이 중 상인을 제외한 순수 주민은 전체 가구의 70% 정도로 추산된다. 이화마을은 서울 대학로에서 동쪽 낙산 방향으로 800m가량 올라간 지점에 있다. 지난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낙후 지역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이화1주택 재개발지

구(1만3889㎡)에 벽화 16점을 그리면서 벽화마을이 됐다. 2010년에는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2012년에는 SBS 드라마 ‘육탄방 왕세자’ 등이 이곳에서 촬영되면서 대표적인 한류 관광 코스로 떠올랐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카페와 상점 등도 속속 들어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소음 등의 피해도 적잖았다. 작년에는 서울

벽화 지운 주민 “재개발 못하고 소음·쓰레기 때문에 못살겠다”
상당수 주민 “동네 깨끗해지고 집값 오르는 등 좋은 측면 있어”

이화 벽화마을은
정부 2006년 낙후지역 개선위해
벽화 16점 그려... 한류 관광코스
관광객 몰려 카페 속속 들어서

시가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 일대는 당초 재개발 지역으로 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됐지만 사업성이 없어 좌초됐고 올 1월 조합도 해산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낙후된 환경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주민 차인숙(53)씨는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텐데, 그러면 앞으로 주민 피해를 감수하는 만큼 주거지역 업종 규제 완화 등 혜택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업종 규제를 해제하면 이 지역 고유의 특색이 사라진다”며 “대신 주택 개량이나 주택 용벽 보수, 공동 정화조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화마을 주민 중 상당수는 벽화 훼손



은 과했다는 시각을 보였다. 이곳에서 40년째 살았다는 박모(62)씨는 “재개발이 중단돼 아무도 찾지 않고 더럽기까지 했던 동네가 벽화가 그려진 이후 깨끗해졌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벽화가 생긴 이후 집값이 2~3배 오르는 등 좋아진 측면도 많다”고 했다. 이태호 경희대 미술학과 교수는 “이 그림은 공공자금이 투입된 문화적 자산”이라며 “이런 작품을 훼손한 것은 문화 파괴 행위나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이화마을처럼 벽화가 조성된 지역은 100여곳에 이른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마을 상점에 주민을 고용하거나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재생 사업으로 생기는 과실을 주민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석모·최윤아·김선엽 기자



박상훈 기자
25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벽화 마을을 찾은 한 관광객이 꽃 그림이 사라진 회색 계단에 앉아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작은 사진은 지난 3월 회색 페인트로 덧칠하기 전, 꽃이 그려진 계단에서 시민들이 산책하는 모습. 이곳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낙후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벽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 10년간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됐다. 하지만 지난 15일 인근 주민들이 회색 페인트로 덧칠을 하면서 꽃 그림이 사라졌다.

※출처: 조선일보 2016. 04. 26.

 **활동 1.** 다음은 벽화마을 사진입니다.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벽화마을과 연관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작성해 봅시다.

작성 요령

1. 마을주민, 관광객, 벽화 제작자를 아래 사진에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사진 찍는 관광객 모습, 걷는 주민 등)
2. 색연필(혹은 사인펜)로 인물 주변에 말풍선을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마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대화체로 써 보세요.



 **활동 2.** 신문 기사를 읽고, 벽화가 생기기 전과 후, 그리고 현재 벽화 마을을 보는 주민과 관광객의 느낌과 생각을 글로 표현해 봅시다.

	최초 이화마을	벽화 조성	현재
마을 주민			
관광객			

 **활동 3.** 활동 (2)에서 모두가 행복한 때는 언제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민과 관광객,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행복했을 때 :
.....
.....

주민	
관광객	
서울시 관계자	



활동 4.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출하려고 합니다. 등장인물의 느낌이나 생각을 담아 대화체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세요. 또한 모둠원들의 작품 중에 하나를 골라 친구들 앞에서 시연해 봅시다.

scean 34 - 이화 벽화마을

출연 : 오근숙(마을주민), 외국인 관광객, 국내 관광객…(* 출연진은 변경할 수 있음.)



활동 5. ‘조화로운 삶’을 위해 캐러밴 업체 대표, 자동차 운전자, 공공주차장 직원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알아봅시다.

‘캐러밴(Caravan)’으로 알려진 무동력 캠핑용 트레일러 대여 업체들이 공공 주차장을 독차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께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조성된 인천 계양구 두리생태공원 주차장에는 A업체 소유의 캠핑용 트레일러 7대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트레일러는 1대당 일반 승용차 2~3대 사용 면적을 차지하는 상황. 아라뱃길 방문객을 위해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이 특정 업체의 차고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경인아라뱃길 일대에는 20여 대의 캠핑용 트레일러가 주차돼 있다.

이곳에서 만난 전소민(38) 씨는 “주말 등을 이용해 경인아라뱃길을 자주 찾는데 올 때마다 캐러밴들이 주차돼 있어 경인아라뱃길에서 운영하는 것인 줄 알았다”며 “주말엔 주차 문제로 이중·삼중 주차 불편을 겪고 있는데, 특정 업체가 쓴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경인일보, 2016년 5월 17일자 일부 발췌



	역할놀이	■ 역할놀이 학생들 앞에서 연기하고, 자신 느낌을 발표하도록 한다.
	적용하기	■ 조화로운 삶을 위한 방법 3
정리 (인성의 내면화)	가치의 내면화	■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90 창의인성 수업 지도서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사이트



<http://www.khan.co.kr>



<http://www.kmib.co.kr>



<http://www.naeil.com>



<http://www.donga.com>



<http://www.mk.co.kr>



<http://www.mt.co.kr>



<http://www.munhwa.com>



<http://www.sedaily.com>



<http://www.seoul.co.kr>



<http://www.segye.com>



<http://www.sportsseoul.com>



<http://sports.chosun.com>



<http://www.etnews.com>



<http://www.chosun.com>



<http://joongang.joins.com>



<http://www.hani.co.kr>



<http://www.hankyung.com>



<http://hankookilbo.com>



<http://biz.heraldcorp.com>



<http://www.yonhapnews.co.kr>



<http://www.kado.net>



<http://www.kwnews.co.kr>



<http://www.kyeonggi.com>



<http://www.knnews.co.kr>



<http://www.gnnews.co.kr>



<http://www.kbmaeil.com>



<http://www.hidomin.com>



<http://www.kyongbuk.co.kr>



<http://www.ksilbo.co.kr>



<http://www.kyeongin.com>



<http://www.kwangju.co.kr>



<http://www.kookje.co.kr>



<http://www.idaegu.com>



<http://www.daejonilbo.com>



<http://www.imaail.com>



<http://www.busan.com>



<http://www.yeongnam.com>



<http://www.iusm.co.kr>



<http://www.jeollailbo.com>



<http://www.domin.co.kr>



<http://www.jjan.kr>



<http://www.jejunews.com>



<http://www.joongdo.co.kr>



<http://www.jbnews.com>



<http://www.joongboo.com>



<http://www.cctoday.co.kr>



<http://www.ihalla.com>

발행일 2016년 8월 12일 초판 제1쇄 발행
지은이 김영순(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권영부(동북고등학교 수석교사)
박의현(창덕여자중학교 교사)
홍근태(인하대사범대부속중학교 교사)

발행인 이병규

펴낸곳 한국신문협회

주 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층

전 화 733. 2251~2

팩 스 720. 3291

홈페이지 www.presskorea.or.kr

※ 책자의 무단 전재와 배포를 금합니다.

디자인·편집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전 화 02. 333. 7136

〈비매품〉